

高麗 驪興閔氏의 權門世族으로의 성장과정에 대한 연구

민덕식*

I. 머리말	IV. 분석
II. 중앙으로의 진출	1. 科擧及第
III. 권문세족으로의 성장	2. 婚姻
1. 무인집권기	3. 名儒
2. 원나라 간섭기	1) 민지
1) 원종~충선왕	2) 민사평
2) 충숙왕~공민왕	3) 민제
3. 교체기(閔霽)	4. 忠臣
	V. 맺음말

I. 머리말

驪興 閔氏는 고려시대에 大姓으로 대를 이어 顯官名儒들을 배출시킨 명문이었다. 여흥 민씨의 出自는 중국에서 들어왔다고도 하고, 驪水에서 나왔다고도 하는 이야기들이 전해오고 있었다.¹⁾ 전자는 李奎

* 전 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

1) 閔奎가 지은 「驪興閔氏族譜舊序」.

報가 右散騎常侍 閔湜에게 드린 시에 “조상은 費侯같은 현인으로부터 나왔네.”라는 구절에서 나온 것이다.²⁾ 비후는 孔子의 제자 10哲 중의 한 사람인 閔子騫을 가리킴이며, 『論語』 雍也編에 季氏가 민자건에게 사신을 보내어 費宰를 삼으려고 했다는 것에서 연유한 것이다. 비후는 민자건의 관직으로 비는 魯나라의 고을 이름이고, 후는 그 고을 장관이다. 이는 여흥 민씨의 시조를 중국의 현인 민자건에 붙여 미화시킨 中國渡來說로 우리나라 성씨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³⁾ 『高麗史』에는 고려 초에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려에 귀화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고려 초에 중국에서 민씨 성을 가진 사람이 귀화했다는 기록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후자는 閔窟說이다. 여수는 여주 옆으로 흐르는 남한강의 驪江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주를 지칭한다.⁴⁾ 즉 여주에 있는 민굴에서 시조가 나왔다는 설화이다. 穴에서 나왔다는 시조 탄생설화 역시 다른 성씨들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다. 여주지역 古冢들의 반 이상이 민씨들의 무덤이라는 이야기가 전해 올 정도로 민씨들은 여주의 토족이었다.

조선 초 驪州牧의 土姓은 李, 閔, 安, 畢, 尹, 金, 韓, 陰씨였는데,⁵⁾ 『新增東國輿地勝覽』 驪州牧 人物條에는 고려시대 인물로는 이규보로 대표되는 驪興(驪州) 李氏 3명과 閔令謨로 대표되는 여흥 민씨 10명만 이 기록되어 있다. 이밖에 寓居로써 金九容이 포함되어 있는데, 김구용은 閔思平의 외손이기 때문에 여흥 민씨와 관련이 있다. 이로써 보면 조선 초의 토성 중에서 여흥 민씨와 여흥 이씨가 고려시대 黃驪縣의 대성으로서 세력을 펼치고 있었으며, 전술한 이규보가 민식에게 드

2) 『東國李相國集』 권8 呈內省諸郎并敍戊午年.

3) 중국도래설에 의해 여흥 민씨를 遙遙華胄, 汶水華閥, 汶水後裔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4) 驪江은 여주의 고을 이름으로 되었다. 이 때문에 여흥 민씨를 驪江 閔氏라고도 하였다. 즉 韓明澮의 처는 驪江 閔氏로 고려의 大儒로 문하시중을 지낸 文仁公 閔漬의 5세손인 嘉靖大夫 漢城府尹 奉朝請 閔大生의 딸이라고 하였다(『世祖實錄』 권27 世祖 8년 2월 庚寅). 민대생은 민지의 2남인 閔祥伯의 증손이다.

5) 『新增東國輿地勝覽』 驪州牧 姓氏.

린 시에서 “더구나 우리는 戚分이 있는 처지니, 평생에 그 인연만을 믿으렵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여흥 민씨와 여흥 이씨는 외척과 처족이 되는 사이로 혼인관계를 맺으며 이 지역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던 토족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II. 중앙으로의 진출

태조 1년 6월에 태봉의 鐵員京에서 정변이 일어나 王建이 고려를 건국하자, 태조는 즉위하여 백관들을 임명할 때 狗軍郎中⁶⁾ 閔剛을 內軍將軍으로 임명하였다.⁷⁾ 8월에는 포학한 공예를 폐위하고 창업에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훈을 표창하였는데, 洪儒, 裴玄慶, 申崇謙, 卜智謙은 1등으로 하여 금은 그릇과 비단침구, 綾羅, 포백 등을 차등 있게 주고, 堅權, 能亮, 權愼, 廉湘, 金樂, 連珠, 麻煖 등은 2등으로 삼고 금은 그릇과 비단침구, 綾帛을 차등 있게 주고, 3등 2천여 인에게는 綾帛과 곡식을 차등 있게 주었다.⁸⁾ 이때 민강도 창업공신 3등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⁹⁾

또 같은 8월에는 甄萱이 일길찬 閔郤을 고려에 보내 왕의 즉위를 축하하면서 공작선과 지리산 竹箭을 바쳤다.¹⁰⁾ 태조는 광평시랑 韓申一 등을 보내 甘彌縣에 가서 그를 맞게 하고 민합이 온 후에는 환대하여 보냈다.¹¹⁾

6) 2등공신이 된 광평랑 能亮을 민강의 후임으로 순군랑중에 임명한 것을 보면, 민강의 당시 위치를 가늠하여 볼 수가 있다(『高麗史』 권1 世家1 太祖 1년 7월 壬申).

7) 『高麗史』 권1 世家1 太祖 1년 6월 戊辰.

8) 『高麗史』 권1 世家1 太祖 1년 8월 辛亥.

9) 문종대에는 이들 태조대의 공신들에게 순서에 따라 벼슬을 추증하였다(『高麗史』 권7 世家7 文宗 8년 12월 庚寅).

10) 『三國史記』 권50 열전10 甄萱傳.

11) 『高麗史』 권1 世家1 太祖 1년 8월 辛亥.

하이튼 민강은 황려현의 호족으로 궁예를 도와 중앙으로 진출하고, 왕건의 정변에도 공이 있어 내군장군이 되고 고려의 창업공신에 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민합 역시 일길찬으로 견훤이 왕건의 즉위를 축하기 위해 파견한 후백제의 사절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후백제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에 있던 인물이라고 추정된다. 민강과 민합은 문헌상에 나타나는 민씨의 가장 오래된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개성에서 출토되었다는,¹²⁾ 鄉貫이 황려현으로 되어 있는 ‘閔瑛墓誌’가 있다.¹³⁾ 민영은 문종 29년에 출생하여 의종 4년에 76세로 사망한 인물이었다. 증조는 尙書右僕射 겸 太子少師를 지낸 閔可舉이고, 조부는 衛尉卿 知三司事를 지낸 閔昌素이며, 부는 監察御使를 지낸 閔孝侯이고, 형은 起居注를 지낸 閔脩였다.

『고려사』에는 민가거는 덕종 즉위년에 공부상서,¹⁴⁾ 동왕 2년 1월에 예부상서,¹⁵⁾ 10월에 형부상서,¹⁶⁾ 동왕 3년에 좌복야가 되었다고 하였다.¹⁷⁾ 민창소는 太僕卿으로 문종 17년에 지서북면추동변병마사가 되었고,¹⁸⁾ 동왕 18년 3월부터 5월까지에 태복경으로 開國寺 남쪽에 음식을 차려 놓고 窮民들을 구휼하였다.¹⁹⁾ 민수는 右正言으로 예종 대에 요나라에서 여진을 공격하기 위해 고려에 청병을 요청하자, 金富佾, 金富軾, 韓冲, 拓俊京 등과 출병을 반대했었다.²⁰⁾

민영은 호협하고 어려서부터 매사냥과 격구를 좋아하였으며, 父가 東界兵馬判官으로 재직하다 전사했기 때문에 부모의 원수를 갚고자 예종 1년 여진을 정벌할 때 神騎軍에 입대하여, 동왕 4년까지 변방을 방어하면서 많은 전공을 세웠다. 그 후 長淵縣의 수령이 되었다가 閔

12) 민영은 의종 6년에 開城府 界內 海晏寺 북쪽 기슭에 안장되었다(『閔瑛墓誌』).

13) 中樞院, 1969, 『朝鮮金石總覽』 上, 경인문화사, 365~366쪽.

14) 『高麗史』 권5 世家5 德宗 즉위년 9월 庚戌.

15) 『高麗史』 권5 世家5 德宗 2년 정월 己卯.

16) 『高麗史』 권5 世家5 德宗 2년 10월 己亥.

17) 『高麗史』 권5 世家5 德宗 3년 7월 丙申.

18) 『高麗史』 권8 世家8 文宗 17년 7월 庚申.

19) 『高麗史』 권80 志34 食邑3.

20) 『高麗史』 권97 列傳10 金富佾傳.

門祇候, 靈州防禦使, 大府司宰主簿, 軍器丞, 諸陵署令을 거쳐 都齋庫副使와 檢校太子少保를 역임하였다.

『여흥민씨세보』²¹⁾에는 閔令謨의 부는 閔懿(초명은 愍)로 戶部員外郎의 벼슬을 하고,²²⁾ 檢校尙書都省 左僕射에 증직되었다고 하였다. 민씨의 좌복야의 증직은 아들인 민영모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²³⁾ 조부는 閔世衡으로 御史臺 監察御史의 벼슬을 하고, 檢校太子少保에 증직되었다고 하였다. 증조부는 閔稱道로 尙衣局 奉御의 벼슬을 하였으며, 여흥 민씨의 1세가 된다고 하였다.²⁴⁾ 민칭도의 출생시기는 靖宗初 정도로 추정된다. 여기서 민영모부터 증조부인 민칭도까지의 世系는 정확하다고 보여 지고,²⁵⁾ 이들은 황려현²⁶⁾ 사람들로 중앙에 진출하여 6품직 정도의 벼슬을 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민칭도의 가계는 증시조격인 민영모를 기준으로,²⁷⁾ 관행에 따라 三代親인 증조부까지만 한정하여,²⁸⁾ 증조부인 민칭도를 1세로 잡았다고

21) 『여흥민씨세보』는 『大內譜』(태종대), 『丁酉譜』(1477), 『戊戌譜』(1478), 『壬戌譜』(1622), 『辛亥譜』(1671), 『癸巳譜』(1713), 『壬戌譜』(1802), 『己丑譜』(1889), 『癸亥譜』(1923), 『壬寅譜』(1962), 『癸丑譜』(1973) 순으로 修譜되었다.

22) 『高麗史』 권101 列傳14 閔令謨傳.

23) 封贈制에서 肅宗 5년 2월에는 4품 이상 관리의 부모에게 작위를 주었고, 예종 3년 2월에는 兩京의 문무 양반에게 관직의 높고 낮음에 따라 부모와 처에게 작위를 봉하도록 하였다(『高麗史』 권75 志29 選舉3).

24) 「閔思平墓誌」에도 민사평의 9대조인 민칭도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다(中樞院, 1969, 「閔思平墓誌」, 『앞 책』 上, 661~663쪽).

25) 「閔思平墓誌」에서 집안에 족보가 있다고 한 것을 보면, 이미 系譜牒이 작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조선 성종 9년에 교리 閔奎가 지은 「驪興閔氏族譜舊序」에는 이러한 가계와 관직을 古書에서 보았다고 하였다.

26) 여주는 고려 초에 황려현이 되었다가 고종 때 永義縣으로 바뀌고, 충렬왕 31년에 順敬太后 金氏의 고향이라 하여 驪興郡이 되었다(『新增東國輿地勝覽』 驪州牧 建置沿革).

27) 卞季良이 찬한 태종의 신도비문에도 원경왕후의 선대 世系를 민영모로부터 시작하였다(『太宗實錄』 권36 太宗 18년 11월 甲寅).

28) 고려 태조도 3대를 기준으로 삼아 증조부를 始祖 元德大王, 조부를 懿祖 景康大王, 부를 世祖 威武大王으로 추존하였다(『高麗史』 권1 世家1 太祖 2년 3월 辛巳). 후대에는 조상의 추존도 3대를 하였다(『高麗史』 권116 列傳29 沈德符傳).

보여 진다.

Ⅲ. 권문세족으로의 성장

1. 무인집권기

1) 閔令謨

민영모는 향관이 황려현으로, 예종 10년에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인종 16년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벼슬이 여러 번 올라 吏部員外郎이 되고, 명종이 즉위한 후 刑部侍郎이 되었다. 명종은 민영모를 크게 등용할 생각을 가지고 순차를 가리지 않고 樞密院副使로 삼았다가 후에 判兵部事로 임명하였다. 이에 御史臺에서 병부의 銓注가 부당하다고 탄핵하자, 민영모는 글을 올려 중서문하성과 重房들의 예를 열거하며 반박하므로 어사대의 전원이 공동으로 죄를 청하였다. 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간곡히 타이르고 모두 다 나와서 일을 보라고 지시하였다. 얼마 후에 中書侍郎平章事に 임명되었다.²⁹⁾

명종 9년 5월에 同中書侍郎平章事 判吏部事가 되었다. 이때 정중부의 사위인 송유인을 同中書侍郎平章事 判兵部事로, 정중부의 아들인 鄭筠을 知都省事로 임명하였다.³⁰⁾ 전에 정중부가 문하시중으로 중서성에 있을 때에는 송유인은 親嫌으로 재상 지위에 오르지 못하고 수년간 추밀원에 있었는데, 은밀히 내시에게 부탁해서 守司空尙書僕射가 되었으며, 정중부가 명종 8년에 致仕하자 문하시랑평장사의 벼슬을 받았다. 그런데 그때 민영모는 앞서 중서시랑평장사가 되어있었으며 송유인은 무인이라 客氣를 피웠고 정중부의 사위였으므로 명종은 심중에 꺼렸다. 그런 형편에서 민영모의 윗자리를 주니 송유인이 굳이 사양하므로 민영모를 문하시랑평장사로 임명하였다고 한다.³¹⁾

29) 『高麗史』 권101 列傳14 閔令謨傳.

30) 『高麗史』 권20 世家20 明宗 9년 5월 丙寅.

31) 『高麗史』 권128 列傳41 叛逆2 鄭仲夫 附 宋有仁傳.

한편 이해 11월에는 康仁殿의 중수가 완공되었다. 이전에 정문 현관을 嚮福이라고 하였는데, 그 정문이 중방 동쪽 모퉁이와 접근해 있었으므로 무신들의 의견에 ‘향복’은 ‘항복’과 음이 비슷하니 대개 문신들이 이것으로써 무신을 위압하여 항복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왕에게 그 현관을 고치자고 청하였다. 이에 왕이 평장사 민영모에게 명하여 ‘永禧’로 고치게 하였더니 무관들이 또 말하기를 문신들의 생각을 추측할 수 없으니 ‘영희’에 따로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음을 어찌 알겠느냐고 하면서 ‘희’는 복희자이나 ‘영’자 뜻의 길흉을 알 수 없고, ‘重’자는 중방의 명칭이니 ‘重禧’로 고치기를 바란다고 하자,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는 우스운 일화가 전한다.³²⁾

동왕 10년 12월에는 본직을 겸하면서 太子太師가 되었다.³³⁾ 李齊賢이 찬한 『閔漬墓誌』에는 벼슬이 金紫光祿大夫 開府儀同三司 特進 守太子太師 上柱國 門下侍郎 同中書門下平章事 集賢殿太學士 監修國史 判吏部事に 이르렀다고 하였다.³⁴⁾ 이처럼 민영모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재상의 반열에까지 올랐던 문신으로, 경대승의 집권기에는 이부의 銓選을 장악하면서 세력을 떨쳤다.

70세에 맞추어 왕에게 요청하여 致仕하는 것이 관례였으나,³⁵⁾ 70세가 되지 않은 명종 13년에 왕에게 요청하여 致仕하였다. 그러나 아직 70세 미만이어서 미결로 되어 있었는데, 사졸출신 무신인 李光挺이 규정상 그 후임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광정이 먼저 글을 올려서 사직을 청원하였다고 한다. 이는 민영모의 치사를 재촉한 것이다.³⁶⁾ 이광정은 12월에 곧 민영모의 후임으로 守太傅 判吏部事가 되었다.³⁷⁾ 민

32) 『高麗史』 권20 世家20 明宗 10년 11월 壬子 ; 『高麗史節要』 권12 明宗 10년 11월.

33) 『高麗史』 권20 世家20 明宗 10년 12월 乙巳. 태자궁의 관직은 太子太師, 太子太傅, 太子太保, 太子少師, 太子少傅, 太子少保가 있었다.

34) 金龍善, 2012,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학교 출판부, 458~460쪽.

35) 관례에 의하면 연로 퇴직 청원은 대개 그해 10월에 하였다(『高麗史』 권128 列傳41 叛逆2 鄭仲夫 附 李光挺傳).

36) 『高麗史』 권128 列傳41 叛逆2 鄭仲夫 附 李光挺傳 ; 『高麗史節要』 권12 明宗 13년 7월.

영모는 명종 24년 3월에 80세로 사망하였다.³⁸⁾ 시호는 文景이다.

하여튼 민영모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던 때는 妙淸의 亂이 평정된 2년 후로써 난을 평정한 金富軾이 권력을 잡고 있던 시기였다. 인종과 의종대는 귀족문화의 극성기로 문치주의에 입각한 귀족 정치는 무신의 사회적 열세를 초래하여 무신들은 정치적으로 문신보다 하위였고, 경제적으로도 열세에 놓여 있었다. 무인들에 대한 천대는 太平好文의 主라는 의종대에 극도에 까지 달하였다. 이러한 文武差別, 武臣蔑視 풍조의 팽배는 마침내 민영모가 55세가 되던 의종 24년에 鄭仲夫·李義方·李高 등에 의한 武人の 亂을 연출하고 말았다. 이처럼 민영모의 노년기는 무인의 난후 정중부·송유인·정균을 제거하고³⁹⁾ 집권한 청년 장군 慶大升의 집권시기까지 무인간의 정권쟁탈 과정을 보면서 관직생활을 하였으며, 치사하던 해도 경대승이 30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던 해였다.⁴⁰⁾ 이성을 잃은 무자비한 살육이 자행되던 무인의 난을 직접 겪은 그는 조심성이 많은 성품으로 인해 살벌한 시기에도 어느 정도 평탄한 관직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⁴¹⁾

민영모는 명종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 명종이 王弟 翼陽公으로 潛邸에 있을 때 꿈에 한 재상이 많은 추종들을 데리고 廣化門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당신의 재상이라고 하였다. 명종이 즉위한 후 민영모가 형부시랑으로서 南省試

37) 『高麗史』 권20 世家20 明宗 13년 12월 庚寅.

38) 『高麗史』 권20 世家20 明宗 24년 3월 丁丑.

39) 『高麗史』 권20 世家20 明宗 9년 9월 辛未.

40) 『高麗史』 권20 世家20 明宗 13년 7월 丁丑 ; 『高麗史』 권100 列傳13 慶大升傳.

41) 왕인 명종 자신도 본래 기질이 나약한데다가 여러 번 변란을 당한 까닭에 걸핏하면 놀래고 두려워했으며 국가의 일체 중요한 정사는 일일이 부관들의 견제를 받았고, 정중부 집권기에는 심지어 음약이나 여색에 대한 일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高麗史』 권20 世家20 明宗 10년 6월 庚戌). 또 명종은 한방에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에 처방하는 약재인 栢子仁으로 만든 술을 감복했던 것을 보면(『高麗史』 권20 世家20 明宗 15년 4월 乙亥), 그가 얼마나 무인들의 횡포에 시달렸는가를 알 수가 있다.

(國子監試)를 맡아 급제자의 방을 발표할 때,⁴²⁾ 명종이 문득 보니 그의 모습이 꿈에 보던 사람과 같았다. 이때부터 크게 등용할 생각을 가지게 되어 순차를 가리지 않고 선발 등용하였다고 한다.⁴³⁾

2) 閔湜

민영모의 1남이다. 의종 21년에 국자감시에 급제한 후 내시에 배속되었다가 신종 1년에 右散騎常侍가 되었다.⁴⁴⁾ 이에 앞서 崔忠獻과 崔忠粹 형제는 집권한 다음 해인 명종 27년에 명종이 28년간 왕위에 있었고, 늙고 일에 권태증이 생겼으며, 小君들이 항상 왕의 곁에서 권세를 잡고 국정을 어지럽히고, 여러 소인들을 총애하여 금과 비단을 많이 주었으므로 국고가 비었기 때문에 백성과 신하들의 왕이 될 수 없다고 하여 폐위시켜 昌樂宮으로 내쫓고, 왕의 아우인 平涼公을 맞아 신종으로 삼았다. 또 이때 최충헌과 최충수는 군사를 데리고 추밀원으로 들어가서 각 衛의 장군들을 毬庭에 주둔시키고, 왕에게 청하여 내시 민식 등 70여 명을 내쫓았다.⁴⁵⁾ 이 당시 민식은 오랫동안 왕의 곁에서 일을 하던 수석급의 내시였던 것으로 보여 지며, 父에 이어 명종과 친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다. 그는 신종 4년 12월에 형부상서 재임시 사망하였다.⁴⁶⁾ 『閔漬墓誌』에는 太中大夫 兵部尙書 寶文閣學士 知制誥를 지냈다고 하였다.

이규보가 신종 1년에 右散騎常侍 민식에게 드린 시에는 “옛날부터 대대로 양반집으로 내려와, 조상은 費侯같은 현인으로부터 나왔네. 蘭玉에 쌍 가지 빼어나(아우가 承宣이 되었다), 무지개처럼 한 기운이 연했구나. 벼슬길에 형제가 순탄히 승진되어, 좋은 자리 서로 번갈아

42) 민영모는 명종 5년 6월에 국자감시를 보며 詩賦에서 承丘源 등 12인, 十韻詩에서 方希進 등 60인을 선발하였다(『高麗史』 권74 志28 選舉2).

43) 『高麗史』 권101 列傳14 閔令謨傳.

44) 『高麗史』 권101 列傳14 閔令謨 附 閔湜傳.

45) 『高麗史』 권128 列傳41 叛逆3 崔忠獻傳 ; 『高麗史節要』 권13 明宗 27년 9월 庚申.

46) 『高麗史』 권21 世家21 神宗 4년 12월 戊子.

하네. 나무에 닭이 교대해 깃들고,⁴⁷⁾ 하늘에는 기러기가 앞뒤로 나는 구나(금년에 省郎이 모두 같렸는데, 아우가 省에서 나오고 공이 이어 들어갔다).⁴⁸⁾ 右散騎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旁乘⁴⁹⁾하는 은총한 몸에 듬뿍 받았네. 오색실로 임금의 곤룡포를 꿰매며, 詩篇은 三丈의 눈처럼 청신하구나. 鑄金이 이제부터 뛰어 나오게 되었으니,⁵⁰⁾ 새 새끼가 날아다니도록 도와주오. 桃李 밑에 나있는 오솔길이 사랑스러워,⁵¹⁾ 和璧을 가지고 외람되게 앞에 바치오.⁵²⁾ 조만간에 송곳을 주머니에 넣어 주시고,⁵³⁾ 紈扇은 제발 중도에 버리지 마시오.⁵⁴⁾ 더구나 우리는 戚分이 있는 처지니, 평생에 그 인연만은 믿으렵니다.”라고 하였다.⁵⁵⁾ 이규보다운 十韻詩이다.

그는 천성이 활달하고 큰 도량이 있어서 비록 귀하게 되었지마는 옛 친구를 대할 때는 차별을 아니 하며 평시와 다름없이 대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와 내왕하는 사람이 많았다. 30대 초 연하였던 李奎報와는 고향 사람으로 가깝게 지냈다. 명종의 서자인 승려 小君⁵⁶⁾ 洪機⁵⁷⁾ 등이 권세를 부리며 뇌물을 받으니 조정 관리들이 다투어 그에게 아부하였다. 그러나 민식 만은 찾아가지 않았다. 그의 아우 공규가

47) 『三國志』魏志 劉放傳을 인용한 것으로, 중서성을 鷄樹라고 하였다.

48) 雁行은 상대방을 높이어 그의 형제를 이르는 말이다.

49) 임금을 모시고 수레 옆에 타는 것을 말한다.

50) 『莊子』大宗師를 인용한 것으로, 自薦하여 벼슬길에 나오는 것을 비유한 말인데, 홀륭하게 됨을 말한다.

51) 문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52) 楚나라 사람 和氏가 楚山에서 璞玉을 얻어 文王에게 바친 고사로, 여기서 자기를 알아달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53) 『史記』의 平原君傳에서 나오는 말로, 발탁시켜 줄 것을 비유한 말이다.

54) 漢成帝의 후궁 班婕妤가 충애를 받다가 趙飛燕에게 밀려나서 지은 怨行歌에서 나온 말로, 버리지 말고 영원히 보살펴 달라는 말이다.

55) 『東國李相國集』 권8 呈內省諸郎并敘戊午年.

56) 당시 고려의 제도에 宮人이 왕을 모시고 있다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이의 머리를 깎고 승려로 삼게 하였는데 이들을 소군이라고 불렀다(『高麗史』 권26 世家26 元宗 6년 4월 己未).

57) 최충현은 왕자로서 僧小君이 된 洪機, 洪樞, 洪規, 洪均, 洪覺, 洪貽 등이 내전에 있으면서 정사에 간섭하였다하여 섬으로 유배보냈다(『高麗史』 권128 列傳41 叛逆3 崔忠獻傳).

‘어찌서 찾아보지 않느냐’고 물으니 ‘찾아가지 않는 것도 나의 지조다’라고 답하였다. 하루는 그의 아우가 함께 찾아가자고 청하므로 함께 갔었는데, 술이 취할 무렵에 불쑥하는 말이 무지개 승려의 무리가 나라를 망칠 거라고 하였다. 이에 아우가 깜작 놀라서 진땀을 흘렸다. 무지개는 한 끝이 하늘에 속하고, 한 끝은 땅에 연결된 것이므로 소군이 왕의 아들이면서 어머니가 미친한 것을 비유하여 한 말이다. 이처럼 그는 구속 없는 말을 많이 하였다.⁵⁸⁾

3) 閔公珪

민영모의 2남으로, 초명이 嗣忠이다. 명종 7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은 門下平章事 修文殿太學士 判兵部事에 이르렀다.⁵⁹⁾ 『여흥민씨세보』에는 金紫光祿大夫 守太保⁶⁰⁾ 門下侍郎平章事 修文殿太學士 判兵部事 太子少保라고 되어 있다. 관직이 父에 이어 재상에까지 올랐는데, 수문전태학사를 역임한 것을 보면 그의 유학적 소양을 짐작할 수가 있다. 시호는 定懿이다.

이규보가 左諫議大夫 민공규에게 드리는 시에는 “靑紫의 名門에 몇 제의 世臣이던가, 錦繡같은 심장에 물 같은 정신일세. 누가 알랴 淸切한 中書省에, 풍류다운 外監이 있는 줄을(공이 본래 秘書監에 있었다). 아름다운 행실은 이미 銀筆에 올랐고, 힘찬 문장은 벌써 錦袍를 빼앗네. 漢帝가 만약 相如의 賦를 묻는다면, 楊公처럼 한 고향 사람인 나를 천거하리(나는 공과 같은 郡의 태생이다).”라고 하였다.⁶¹⁾

한편 민공규는 전술한 형과의 일화에서 보면, 성격이 비교적 원만했던 것 같다. 이 때문에 재상에까지 오를 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 특히 민공규가 관직에 있던 시기는 정중부·경대승·李義旼 집권기를 거쳐, 명종 26년에 장군 최충헌이 이의민을 죽이고 세운 최씨 집권기

58) 『高麗史』 권101 列傳14 閔令謨 附 閔湜傳 ; 『自著』(俞漢雋) 卷之一 賦 廣韓賦.

59) 『高麗史』 권101 列傳14 閔令謨 附 閔公珪傳.

60) 太師, 太傅, 太保를 三師라고 한다.

61) 『東國李相國集』 권5 呈內省諸郎.

지 이어졌다.⁶²⁾ 이 동안 그는 살벌한 무인들의 횡포를 직접 보면서 관직생활을 했던 문신이었다.

4) 閔仁鈞

민공규의 3남으로, 초명은 洪貴이다. 희종 1년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여흥민씨세보』에는 벼슬이 正義大夫 判大府事 三司使 充史館修撰 知制誥 太子左諭德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李齊賢이 찬한 「閔頤墓誌」에는 翰林學士를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도 判三司使, 한림학사를 하였다고 하였고, 大司成도 지냈다.⁶³⁾ 그는 재주와 학식이 넉넉하여, 비록 높은 벼슬에 이르러서도 외고 익히는 것을 철폐하지 아니하기를 학생들의 공부하는 것과 같이 하였다. 평시에 태만한 거동이 없었고, 속된 말을 안했으며 움직일 때마다 예법을 따랐다. 門生이나 옛 관속이나 新學 後進이 나아가 보면, 반드시 의관하고 띠를 띠고 대하기를 손님같이 하고, 경서를 이야기 하고 도를 논할 뿐이었다.⁶⁴⁾ 조선 성종 9년에 徐居正이 과거의 우리나라 詩文을 뽑아 편집한 『東文選』에는 민인균이 지은 宰臣 崔宗峻(고모부의 형), 金仲龜, 金良鏡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麻制,⁶⁵⁾ 전 萬德山 白蓮社主 了世를 圓妙國師로 贈諡하는 敎書⁶⁶⁾와 官誥⁶⁷⁾가 실려 있다.

그가 벼슬길에 오른 지 얼마 후에는 최충헌이 희종을 폐위시키는 일이 발생하였다. 희종 7년 12월에 내시낭중 王濬明, 참정 于承慶 등이 壽昌宮에서 최충헌을 죽이려다 실패하였다. 희종은 이와 연루되어 폐위되고, 명종의 태자였던 漢南公이 강중으로 추대되었다.⁶⁸⁾ 그 후

62) 『高麗史』 권20 世家20 明宗 26년 4월 戊午 ; 『高麗史』 권128 列傳41 叛逆2 李義旼傳 ; 『高麗史』 권128 列傳41 叛逆3 崔忠獻傳.

63) 『高麗史』 권74 志28 選舉2.

64) 『新增東國輿地勝覽』 驪州牧 人物.

65) 『東文選』 卷26 制誥 除宰臣崔宗峻金仲龜金良鏡麻制.

66) 『東文選』 卷27 制誥 萬德山白蓮社主了世贈諡圓妙國師敎書.

67) 『東文選』 卷27 制誥 官誥.

68) 『高麗史』 권21 世家21 熙宗 7년 12월 庚子 ; 『高麗史』 권128 列傳41 叛逆3 崔忠獻傳.

권세가 왕을 압도하고 위엄이 일국을 흔들던 최충헌이 고종 6년에 죽고,⁶⁹⁾ 그의 장남인 최이가 뒤를 이어 집권하면서 나라의 주권과 명령을 제 마음대로 처리하는 등 무인집단의 악순환은 지속되었다. 또 대외적으로도 몽고가 금나라를 공격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주에서도 혼란이 일어나면서, 고종 3년 8월에 수만 명의 거란군이 압록강을 건너 침입하여 중부지방까지 유린하다가,⁷⁰⁾ 동왕 6년 1월에 가서야 고려·몽고·東眞의 연합군에 의해 江東城에서 격파되었다.⁷¹⁾ 또 동왕 18년 8월부터⁷²⁾ 30년간 몽고와 麗蒙戰爭을 벌였다. 당시 고려는 군사조직이 크게 와해되고 중앙정부조차 강화로 옮겨진 상황에서 전면적인 방어 전선이 형성되지 못하고 본토에서의 몽고군에 대한 항전은 지방민들의 자발적인 참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⁷³⁾ 오랜 전란으로 국토는 황폐화 되고 백성들은 몽고군의 무자비한 약탈과 살상을 당하고, 농사조차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참상은 형언할 수가 없었다. 이처럼 민인군은 대내외적으로 고난의 시기에 관직생활을 했던 인물이었다.

5) 閔光鈞

민공규의 5남이다. 과거에 급제하여 司諫을 지냈다. 그는 登第라는 칠언율시에서 “四男이 같이 翰林에 몸담아서, 月桂冠 먼저 따라 다투었네, 二兄은 일찍 龍門에 오르고, 한 동생 일찍이 希望功 세웠네. 北堂의 慈母 國祿을 받으시고, 金榜의 父親 風流 누구에게 이을소냐. 병든 몸이 아직 鵬志 품고 남으로 날으라, 구름하늘 바라보니 萬里가 아득하다.”라고 하였다.⁷⁴⁾

69) 『高麗史』 권22 世家22 高宗 6년 9월 壬子.

70) 『高麗史』 권22 世家22 高宗 3년 8월 乙卯.

71) 『高麗史』 권22 世家22 高宗 6년 정월 辛巳; 閔德植, 2009, 「高麗時代의 外侵과 楊根城」, 『年報』 18, 충북대학교박물관, 68~78쪽.

72) 『高麗史』 권23 世家23 高宗 18년 8월 壬午.

73) 閔賢九, 1978, 「高麗의 對蒙抗爭과 大藏經」, 『韓國學論叢』 1,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41쪽.

74) 『東文選』 卷之十五 七言律詩.

무인집권기에 翰林諸儒가 지은 『翰林別曲』에는 俞升旦의 文, 李仁老의 詩, 李公老의 四六, 李奎報와 陳灌의 雙韻走筆, 劉沖基의 對策, 閔光鈞의 經義, 金良鏡의 詩賦로써 과거시험장에 나가면 어떨까라고 하였는데,⁷⁵⁾ 세상에서 부러워함이 이와 같았다.⁷⁶⁾

6) 閔曦

閔仁徹의 2남으로 민식의 孫이다. 고종 18년에 몽고의 대군이 침입하자 3군을 보내어 이를 방어하였는데, 몽고병이 예성강까지 도달하자 개경이 공포에 쌓였다. 이에 최이는 北界分臺御史 閔曦, 내시랑중 宋國瞻을 보내서 몽고군을 위문토록 하였는데,⁷⁷⁾ 이어 11월에 민희는 병마관원외랑 崔桂年과 몽고군 병영에 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몽고군 원수 撒禮塔을 만나고 돌아왔다.⁷⁸⁾ 12월에는 몽고군이 개경 4문 밖에 와서 주둔하고 興王寺를 공격하자, 어사 민희를 다시 그들에게 보내서 음식을 먹이고 강화를 맺게 하였으며, 이튿날에도 민희가 몽고군 병영에 가서 몽고 사절 2명과 수행원 20명을 데리고 왔다.⁷⁹⁾

동왕 19년에 고종은 후군지병마사 우간의대부 崔林壽와 감찰어사 민희를 龜州城으로 보내서 몽고군과 강화하였으니 朴犀에게 항복하라고 권하자, 박서도 왕명을 거역하기가 어려워 할 수 없이 항복하였다.⁸⁰⁾ 8월에는 서경 순무사 대장군 민희가 司錄 崔滋溫과 함께 비밀리에 장교들을 시켜 몽고에서 이곳에 파견한 達魯花赤(다로가치)들을 죽이려고 하였더니, 서경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몽고군의 후환이 두려워 반란을 일으키자 서경유수 崔林壽 등 관속들은 모두 楮島로 도망하였다.⁸¹⁾ 이때는 강화로 천도한 직후였다.⁸²⁾

75) 『高麗史』 권71 志25 樂2 翰林別曲.

76) 『高麗史』 권71 志25 樂2 翰林別曲 ; 『東史綱目』 十下 高宗 7년 3월.

77) 『高麗史』 권128 列傳41 叛逆3 崔忠獻 附 崔怡傳.

78) 『高麗史』 권23 世家23 高宗 18년 11월 癸巳.

79) 『高麗史』 권23 世家23 高宗 18년 12월 壬子.

80) 『高麗史』 권103 列傳15 朴犀傳.

81) 『高麗史』 권23 世家23 高宗 19년 8월 己酉.

82) 『高麗史』 권23 世家23 高宗 19년 7월 乙酉.

동왕 20년 5월에는 서경인 畢賢甫, 洪福源 등이 선유사 대장군 鄭毅와 朴祿全을 죽이고 온 성을 들어 배반하였다.⁸³⁾ 이에 12월에는 최우가 家兵 3천명을 보내어 북계병마사 민희와 함께 서경 반란군을 치게 하였는데, 반란의 주모자인 필현보는 체포되어 서울로 보내져 저자에서 허리를 잘라 죽이고, 홍복원은 遼陽으로 도망하여 東京摠官이 되어 몽고군의 앞잡이로서 고려에 많은 해독을 끼쳤으며,⁸⁴⁾ 나머지 백성들은 모두 바다 섬으로 옮기니 서경은 폐허가 되었다.⁸⁵⁾ 그 후 선유사를 파견하여 서경인들을 위무하고, 반란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군인들에게 상을 주었다. 이는 역사상 중요한 사건으로 그 중심에 대장군 민희가 있었다.

또 동왕 30년 2월에 각 도에 巡問使를 파견할 때 민희는 경상주도에 파견되었다.⁸⁶⁾ 崔沆이 집권한 후 최향은 지추밀 민희, 추밀부사 金慶孫이 여러 사람들의 인심을 얻고 있는 것을 꺼려서 이들을 섬으로 유배 보냈다.⁸⁷⁾ 동왕 45년 12월에는 죽은 추밀원부사 민희가 나라에 공로가 있었다고 하여 처자에게 은 한 근과 쌀 3섬을 주었다.⁸⁸⁾ 충렬왕 8년 5월에는 민희가 갑오년(고종 21년)에 서경병마사로서 공이 있었다고 하여 그의 내외손에게 初職을 錄用토록 하였다.⁸⁹⁾ 하여튼 민희는 여몽전쟁 중 여흥 민씨 중에서 가장 활약이 컸던 인물이었다.

2. 원나라 간섭기

1) 원종 ~ 충선왕

(1) 閔滉

민인균의 1남이다. 고종 31년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여흥민씨세보』

83) 『高麗史』 권23 世家23 高宗 20년 5월.

84) 『高麗史』 권130 列傳43 叛逆4 洪福源傳.

85) 『高麗史』 권23 世家23 高宗 20년 12월.

86) 『高麗史』 권23 世家23 高宗 30년 2월 戊辰; 『高麗史』 권79 志33 食貨2.

87) 『高麗史』 권128 列傳41 叛逆3 崔忠獻 附 崔沆傳.

88) 『高麗史』 권24 世家24 高宗 45년 12월 丁丑.

89) 『高麗史』 권75 志29 選舉3.

에는 벼슬이 朝散大夫 尙書吏部侍郎이라고 하였다. 『閔宗儒墓誌』에는 戶部侍郎이라고 하였고, 『閔思平墓誌』에도 조산대부 호부시랑이라고 하였다. 정4품인 호부와 이부의 시랑을 지낸 것이다.

그가 벼슬을 하던 시기는 대내적으로는 고종 36년 11월에 최이가 사망하고,⁹⁰⁾ 뒤를 이어 執政한 그의 아들 崔沆도 동왕 44년 윤 4월에 사망하였으며,⁹¹⁾ 뒤를 이은 그의 아들 崔誼도 다음해 3월에 柳暉·金仁俊(金俊) 등에 의해 제거되고, 정권은 다시 왕에게로 넘어 갔다.⁹²⁾ 이로써 60여 년의 최씨 집권도 막을 내렸다. 그러나 최의를 제거한 무인 김준,⁹³⁾ 林衍⁹⁴⁾과 임연의 아들 林惟茂가 최충현이 설치한 무인정치기구의 최고직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며 국왕의 권력보다 상위에서 국정을 마음대로 천단하던 최고 막부인 校定都監의 교정별감으로 권력을 장악하였으나, 원종 11년 5월에 林惟茂가 제거되면서,⁹⁵⁾ 100여 년의 무인집권이 종식되었다.

대외적으로는 고종 46년 4월에 몽고군의 군사적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태자가 몽고에 入朝를 하여 강화의 뜻을 표시하고,⁹⁶⁾ 몽고의 강요로 강화의 내성과 외성을 헐어 강화를 표시하였으며,⁹⁷⁾ 원종 1년 3월에는 문무 양반과 여러 제 領府를 3교대로 개경에 왕래시켜 수도를 옮긴다는 뜻을 표시하였다.⁹⁸⁾ 이때 왕과 문신들은 몽고와 강화하여 主戰派인 무인정권을 타도하려고 하였는데, 전술한 것처럼 문신들은 일부 무신들과 결탁하여 최씨를 타도하고 對蒙講和의 길을 열어 놓았던 것이다.

90) 『高麗史』 권23 世家23 高宗 36년 11월 壬申.

91) 『高麗史』 권24 世家24 高宗 44년 윤4월 丁亥.

92) 『高麗史』 권24 世家24 高宗 45년 3월 丙子.

93) 『高麗史』 권130 列傳43 叛逆4 金俊傳.

94) 『高麗史』 권130 列傳43 叛逆4 林衍傳.

95) 『高麗史』 권26 世家26 元宗11년 5월 癸丑.

96) 『高麗史』 권24 世家24 高宗 46년 4월 甲午.

97) 『高麗史』 권24 世家24 高宗 46년 6월 癸未·庚寅.

98) 『高麗史』 권25 世家25 元宗 원년 3월 乙未. 실제로 강화(강도)로부터 개경으로 환도한 것은 원종 11년 5월이었다(『高麗史』 권26 世家26 元宗 11년 5월 丙寅).

하어튼 쿠빌라이(忽必烈)가 몽고 황제(世祖)로 즉위하면서 여몽관계는 급선회하여, 원종 1년 8월까지 몽고군을 철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30년 간의 여몽전쟁은 막을 내렸다.⁹⁹⁾ 이로써 고려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준 지나긴 전쟁도 끝이 나고 고려는 원나라 간섭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어쨌든 무인정권을 중심으로 막강한 몽고군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에 몽고제국 영향권 내에서 드물게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원의 제후국으로 원나라의 간섭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전쟁에 따른 백성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2) 閔昉

閔迪鈞의 1남이고, 민공규의 손이다. 전 大卿 민방은 법에 걸려 면직당하고 廢錮를 받은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몽고 황제 세조가 足疾이 있다는 말을 듣고 몽고에서 파견된 達魯花赤 沈渾을 만나 의술에 능하다고 장담을 하였다. 이에 심혼이 이를 황제에게 보고하자 황제는 민방을 몽고로 불러들였다. 이에 원종은 그에게 尙書左丞의 벼슬을 주고 파견하였다.¹⁰⁰⁾ 『여흥민씨세보』에는 그의 관직이 翰林學士承旨 左僕射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3) 閔萱

閔敷의 2남으로, 민식의 증손이다. 여러 관직을 거쳐 慶州府尹,¹⁰¹⁾ 監察侍史,¹⁰²⁾ 衛尉府尹에 있다가 진라도 지휘사,¹⁰³⁾ 우승지가 되었다.¹⁰⁴⁾ 그 후 副知密直司事로 진급하였다가 都僉議參理로 승진하고,¹⁰⁵⁾ 知都參議사가 되었다. 충렬왕 27년 5월에 충렬왕은 충선왕비인

99) 『高麗史』 권25 世家25 元宗 원년 8월 壬子.

100) 『高麗史』 권27 世家27 元宗 12년 6월 丙申.

101) 한국학문헌연구소, 1982, 『慶州先生案』, 亞細亞文化社.

102) 『高麗史』 권123 列傳36 嬖行1 權宜傳.

103) 『高麗史』 권30 世家30 忠烈王 16년 9월 癸丑.

104) 『高麗史』 권30 世家30 忠烈王 17년 7월 壬寅.

105)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王 26년 4월 戊午.

원나라 晉王의 딸 薊國大長公主(寶塔實憐)를 개가시킬 생각으로 都僉議司使 민훤을 시켜 표문을 가지고 원나라에 가게 하였다. 그러나 민훤은 공주를 개가시킬 것을 요청하는 글은 감히 제출하지 못하고 돌아왔다.¹⁰⁶⁾ 충선왕은 공주를 좋아하지 않아 잠자리를 피하였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던 공주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자 궁 안의 내료들과 난잡하게 어울렸다. 이틈을 타서 충렬왕과는 고려의 왕족 중에서 잘생긴 瑞興侯 璘을 골라 공주에게 들여보내고, 사랑을 나누는 공주는 충렬왕과의 작전대로 충선왕과 이혼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충선왕과에서는 결사적으로 맹렬한 반격을 펴 공주의 개가 작전은 수포로 돌아갔다.¹⁰⁷⁾

왕비를 잃은 충렬왕은 24년 1월에 정치에 뜻을 잃고 아들 충선왕에게 왕위를 선위하였으나,¹⁰⁸⁾ 그해 8월에 원나라에서 충선왕을 강제 퇴위시키고, 충렬왕을 복위시키는 일이 발생하였다.¹⁰⁹⁾ 이때부터 충선왕은 10년 동안 원나라에서 생활을 했고, 원나라에서 장기간 머무르는 동안 고려에서는 즉위 전부터 있던 왕의 부자간 불화가 표면화되었다. 충렬왕 32년에는 충렬왕과에서 王維紹, 宋邦英, 韓愼, 宋麟, 宋均, 金忠義, 石天補 등이 주동이 되어 부자간을 이간시키면서 충선왕을 머리를 깎아 僧으로 만들고, 충선왕에게 소박을 맞고 원나라에 머물고 있던 공주를 독로화로 원나라에 와 있던 충렬왕의 조카인 서흥후에게 개가시키고, 서흥후에게 왕위를 계승시키려는 음모를 꾸며 원나라 황후에게 참소하고, 좌승상 阿忽台, 평장 八都馬辛에게 충선왕을 중상하였다.¹¹⁰⁾ 심지어 이들은 충선왕을 독살하려고도 하였다. 결국 서흥후, 왕유소, 송방영, 한신, 송린, 송균, 김충의, 崔涓 등은 원나라의 文明門 밖에서 처형되었다.¹¹¹⁾

106) 『高麗史』 권32 世家32 忠烈王 27년 5월 庚戌.

107) 『高麗史』 권89 列傳2 后妃2 薊國大長公主傳.

108)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王 24년 1월 丙午.

109)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王 24년 8월 甲子.

110) 『高麗史』 권32 世家32 忠烈王 32년 11월.

111) 『高麗史』 권32 世家32 忠烈王 33년 4월 甲辰 ; 『高麗史』 권125 列傳

이로써 충선왕은 고려의 국정을 장악하게 되고, 70대의 충렬왕은 허수아비가 되었다. 이때에 충선왕은 成宗이 죽자 太子, 우승상 答刺罕 등과 의논하여 황제의 조카 懷寧王을 맞아다가 武宗으로 즉위시킴으로써, 원 황제가 조정 최고의 지위인 승상을 주겠다고 제안할 정도로 원나라에서 위상이 높아졌다.

민훤은 그 후 다시 參理로 있다가,¹¹²⁾ 咨議都僉議贊成事로 승진하였다.¹¹³⁾ 그 후 충렬왕이 승하하고 충선왕이 다시 즉위하자, 개가를 청원하는 표문을 원나라 조정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유배되었다. 충선왕 2년에 치사 僉議贊成事로 사망하였다.¹¹⁴⁾ 시호는 良敏이다. 그는 문서를 초하는 서리 출신으로 세태에 맞추어 출세하였는데, 왕의 곁에서 侍史를 지내고,¹¹⁵⁾ 경상도 안렴사로 있을 때는 왕이 順安縣에 들리자 왕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었고,¹¹⁶⁾ 또 제 멋대로 啓奏하여 왕에게 아첨하였으므로 사람들이 內侍按廉使라고 할 정도로 충렬왕이 총애하던 嬖臣이었다.¹¹⁷⁾ 충렬왕은 측근 중심의 정사를 폄했는데, 민훤은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하여튼 민훤은 하급 관료인 아전에서 재상에까지 오른 인물로, 여기에는 개인의 신분보다는 실용적 능력을 중시하던 원나라의 간접지배를 받던 시대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4) 閔宗儒

민훤의 2남으로, 고종 32년에 출생하였다. 외가인 文景公 崔麟家에서 성장하였다.¹¹⁸⁾ 어려서부터 영민했기 때문에 최린은 항상 옆에 두

38 姦臣1 王惟紹傳.

112) 『高麗史』 권32 世家32 忠烈王 29년 12월 壬申.

113) 『高麗史』 권32 世家32 忠烈王 30년 1월 丙子. 그는 洪子藩, 閔漬 등과 함께 불법 행위를 하는 吳潛을 원나라 사신에게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高麗史』 권125 列傳38 姦臣1 吳潛傳).

114) 『高麗史』 권33 世家33 忠宣王 2년 7월 己亥.

115) 『高麗史』 권29 世家29 忠烈王 6년 3월 乙卯.

116) 『高麗史』 권29 世家29 忠烈王 7년 8월 丙子.

117) 『高麗史』 권123 列傳36 倖幸1 林貞杞傳 ; 『高麗史』 권123 列傳36 嬖幸1 林貞杞 附 閔萱傳.

118) 金龍善, 2012, 「閔宗儒墓誌銘」, 『앞 책』 上, 447~450쪽. 고려에서는

고 앞으로 훌륭한 인재가 될 아이라고 하며 사랑하였다고 한다. 그의 나이 11세 되었을 때 就學하여 大義를 통달하고 門地로 왕자 始陽府의 學友로 선발되고, 원종 4년 19세에 蔭敍로 淸道監務에 등용되었다. 그 고을에는 大姓이 많아서 다스리기가 어려운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민중유는 일체 청탁을 들어주지 않고 법을 엄격하게 세웠으므로 우등 성적의 평정을 받았다. 都兵馬錄事를 거쳐 내시로 들어갔다.

충렬왕대에 문무 여러 관직을 거쳐 東界安集使, 忠淸道按廉使, 大府大僕尹, 東京留守(慶州府尹),¹¹⁹⁾ 三司右尹으로 있다가 判通禮門事를 지내고 密直知中事,¹²⁰⁾ 知典理監察司事로 임명되었으며, 密直副使로 진급되었다가 銓曹尙書 崇福館使로 옮기고,¹²¹⁾ 다시 밀직부사 형조판서로 된지 얼마 안 되어 파면되었다.¹²²⁾ 그 후 얼마를 지나서 다시 등용되어 典法判書로 있었는데, 임시로 判密直司事, 監察大夫로 임명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찬성사의 관직을 받게 되었다. 충선왕 1년에 僉議贊成事로 치사하고,¹²³⁾ 충숙왕 즉위년 9월에도 첨의찬성사로 치사하였다.¹²⁴⁾

충숙왕 6년에 重大匡, 福興君의 봉호를 받았으나,¹²⁵⁾ 동왕 8년에 異姓封君을 폐지함에 따라 복흥군이 해면되고, 다시 찬성사로 있다가,¹²⁶⁾ 동왕 8년 10월에 守僉議贊成事 上護軍 判惣部事로 치사하였다.¹²⁷⁾ 다음해 8월에 전 찬성사 權漢功 등이 왕이 자기들에게 장형을 가하고 유배 보낸 것을 원망하여 驪興君 閔漬, 永陽君 李珣 등에게 청하여 원나라에 가있던 충숙왕 대신 원나라 황제의 사랑을 받던 瀋王 髡를 왕

외가에서 태어나 외가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119) 한국학문화연구원, 1982, 『앞 책』, 亞細亞文化社.

120)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王 23년 10월 辛卯.

121) 『高麗史』 권33 世家33 忠烈王 24년 5월 庚寅.

122) 『高麗史』 권33 世家33 忠烈王 24년 7월 戊戌 ; 『高麗史』 권33 世家 33 忠烈王 25년 3월 壬午.

123) 「閔宗儒墓誌」.

124) 『高麗史』 권34 世家34 忠肅王 즉위년 9월 己酉.

125) 「閔宗儒墓誌」.

126) 『高麗史』 권108 列傳21 閔宗儒傳 ; 「閔宗儒墓誌」.

127) 『高麗史』 권35 世家35 忠肅王 8년 10월 庚戌 ; 「閔宗儒墓誌」.

으로 세우기를 원나라 중서성에 주청하는 글을 지어서 慈雲寺로 백관들을 불러 서명토록 협박 강요하였다.¹²⁸⁾ 결국 청원서는 원나라 중서성에 제출되었으나, 일이 진정되자 중서성에서 돌려보내왔다.¹²⁹⁾

이처럼 심왕파가 심왕을 고려왕으로 옹립하는 운동을 전개하자, 고려 조정은 고려 국왕 지지세력과 심왕 지지세력으로 나뉘고, 심왕파는 고려국 관료들에게 심왕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정국은 혼란에 빠졌다. 심왕파의 정치공세로 충선왕의 유배 직후 충숙왕은 동왕 8년 1월에 소환명령을 받고,¹³⁰⁾ 4월에 개경을 떠나,¹³¹⁾ 연경에 도착하자 곧 억류를 당하고 고려국왕의 상징인 옥새까지 빼앗겼다. 고려로서는 험난한 시기였다.¹³²⁾ 이때 원나라는 심왕의 고려왕 즉위를 별로 원하지 않았고, 고려왕과 심왕의 대립을 이용하여 고려를 쉽게 통제하려는 분열 정책을 쓰고 있었다.¹³³⁾ 이는 충선왕이 동왕 복위 5년에 아들인 충숙왕에게 고려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형 江陽公 滋의 아들인 자식처럼 사랑하며 궁중에서 키웠던 延安君 鬲를 세자로 삼았다가, 충숙왕 3년에 심왕 자리를 물려줌으로써,¹³⁴⁾ 그 禍端이 몇 대까지 내려가도록 그치지 않고 정국에 파란을 일으켰다. 여기에는 아들인 고려왕과 조카인 심왕을 대립시켜 막후에서 자신이 권력을 행사하려는 고도의 정치술이 담겨 있다고 한다.¹³⁵⁾ 원나라는 충숙왕 11년 1월에 가서야 충숙왕에게 돌아가라는 명령을 하고 옥새를 돌려주었으며,¹³⁶⁾

128) 『高麗史』 권35 世家35 忠肅王 9년 8월 丙戌·9월 乙未.

129) 『高麗史』 권109 列傳22 「尹宣佐傳」.

130) 『高麗史』 권35 世家35 忠肅王 8년 1월 己亥.

131) 『高麗史』 권35 世家35 忠肅王 8년 4월 丁卯.

132) 柳淸臣 등은 원나라의 都省에 고려에 行省을 설치하고 원나라 내지와 같이 하여 주기를 청원하였으나, 도성에서 들어주지 않았다(『高麗史』 권35 世家35 忠肅王 10년 1월). 이렇게 고려 왕조를 없애고 원나라의 行中書省으로 만들자는 立省 策動은 충렬왕대로부터 충혜왕대의 奇轍에 까지 7~8회에 걸쳐 즐기치게 진행되었다.

133) 김창현, 2006, 『신돈과 그의 시대』, 푸른역사, 40~41쪽.

134) 『高麗史』 권91 列傳4 宗室2 「瀋王鬲傳」.

135) 김창현, 2006, 『앞 책』, 39쪽.

136) 『高麗史』 권35 世家35 忠肅王 11년 1월 甲寅.

동왕 12년 5월에 공주와 함께 귀국하였는데, 마침 이날 충선왕이 연경에서 세상을 떠났다.¹³⁷⁾

하여튼 그때 종이를 가지고 와서 서명하라고 달래자, 민종유는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신하가 왕을 위하여 허물을 숨기는 것은 바른 도리이니, 내가 어찌 감히 우리 주인을 보고 짓을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비록 늙었으나 너에게 팔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서명을 거절하므로, 그 사람은 부끄러워서 물러갔다고 한다.¹³⁸⁾ 이렇게 민종유는 국왕이 원나라에서 억류되어 있는 어려운 시기에 나라의 國老로서 바른 처신을 보여줌으로써 후세에까지 칭송되었다.¹³⁹⁾ 공교롭게도 이때 민종유와 함께 이를 반대했던 金倫은 손자 閔思平의 장인이 되었다. 충숙왕 11년 5월에 80세로 사망하였다.¹⁴⁰⁾ 시호는 忠順이다.

민종유는 타고난 자질이 장중하며 풍채가 아름답고 명랑하였다. 典故에 밝았으며, 관료로서의 뛰어난 재간이 있었고, 망령되게 교유하지 않았으며, 친척들에게 敦睦하였다. 청탁하는 일이 없었으며, 퇴근하면 곧 대문을 닫고 손님을 사절하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였다. 말(馬)을 좋아하는 성벽이 있어서 남에게 좋은 말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든 그 말을 사다가 항상 문 앞에 매어두고 아침저녁으로 사랑스럽게 보았다. 만년에는 거문고와 통소를 좋아하였으며, 화초를 많이 가꾸어 놓고 풍류와 노래로 낙을 삼았다고 한다.¹⁴¹⁾

(5) 閔漬

閔輝의 1남으로, 민식의 증손이다. 자는 龍涎이고, 호는 默軒이다. 태몽에 용꿈을 꾸고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총명하였다. 8세에 능히

137) 『高麗史』 권35 世家35 忠肅王 12년 5월 辛酉.
 138) 『高麗史節要』 권24 忠肅王 9년 8월 ; 『高麗史』 권108 列傳21 閔宗儒傳 ; 『高麗史』 권125 列傳 38 奸臣1 權漢功傳.
 139) 『立齋先生遺稿』(姜再恒) 卷10 雜著 東史評証 高麗 ; 『自著』(俞漢雋) 卷1 賦 廣韓賦.
 140) 『高麗史』 권35 世家35 忠肅王 11년 5월 己丑.
 141) 『高麗史節要』 권24 忠肅王 11년 5월 閔宗儒卒記 ; 『高麗史』 권108 列傳21 閔宗儒傳 ; 「閔宗儒墓誌」.

글을 지었고, 독서를 하다 탈자와 오자가 있으면 뜻으로써 늘림과 줄임을 밝혀내므로 보는 사람들이 善本을 가져다 대조해보면 과연 맞음으로 모두들 경탄할 정도로 보기 드문 수재였다.¹⁴²⁾

원종 7년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충렬왕대에는 閤門祇候를 거쳐 殿中侍史로 전입되었으며,¹⁴³⁾ 여러 관직을 거쳐 禮賓寺尹이 되었다. 禮賓寺尹으로 정당문학 鄭可臣과 함께 충선왕이 세자로서 원나라에 갔을 때 스승으로 따라갔는데,¹⁴⁴⁾ 황제가 대신들에게 월남의 交趾를 정벌하는 대책을 논의토록 할 때에 민지 등도 함께 참석토록 명하였다. 이때 민지 등의 대책이 황제의 뜻에 맞았으므로, 민지에게 원의 翰林直學士 朝列大夫의 벼슬을 주었다.¹⁴⁵⁾

그 후 원나라가 다시 일본을 정벌하려고 하면서 고려로 하여금 전함들을 건조하라고 하였으므로 충렬왕이 원에 입조하여 정벌의 불편을 진술하려고 하였다. 민지는 左副承旨¹⁴⁶⁾로서 왕을 따라갔다.¹⁴⁷⁾ 이때 민지는 杜佑의 『通典』에 당이 고구려를 정벌하려 할 때 魏徵이 당 태종에게 간한 내용을 흥복원의 아들인 僉院 洪君祥에게 보이면서 지난 연간에 일본 정벌(東征)때문에 고려 백성들은 있는 힘을 다하였는데, 지금 만약 동정을 중지시키지 않으면 고려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이 잘 처리해 달라고 간청을 하였다. 이에 홍군상은 고려왕도 그런 말씀을 하였는데 내가 감히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승낙하였다. 민지가 이를 전하면서 왕을 따라갔던 신하들과 의논하여 전함 건조를 중지시키려고 하자, 印侯와 張舜龍은 이것은 원나라 조정에서 결정할 큰 문제인데 어찌 침원의 말만 듣고 중지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민지는 후일에 만약 원에서 책임 추궁이 있게 되면

142) 「閔漬墓誌」.

143) 『高麗史』 권29 世家29 忠烈王 6년 3월 乙卯.

144) 『高麗史』 권30 世家30 忠烈王 16년 11월 丁卯 ; 『高麗史』 권105 列傳18 鄭可臣傳.

145) 「閔漬墓誌」 ; 「閔漬妻申氏墓誌」.

146) 『高麗史』 권30 世家30 忠烈王 18년 윤6월 辛亥.

147) 『高麗史』 권30 世家30 忠烈王 19년 10월 己亥.

내가 자진해 나가서 감당하겠으니 여러분들은 알 바 아니라고 하면서 그 길로 왕에게 말하여 중지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민지가 굳세고 강직한 사람이라고들 하였다.

그 후 우승지를 거쳐,¹⁴⁸⁾ 密直學士로 승진되었다가,¹⁴⁹⁾ 얼마 후 세자의 요청으로 파직되었다.¹⁵⁰⁾ 오랜 시일이 지나서 同修國史,¹⁵¹⁾ 集賢殿太學士 簽光政院事가 되었다가,¹⁵²⁾ 同知密直司事, 監察大夫, 詞林學士 承旨가 되고,¹⁵³⁾ 다시 僉議參理,¹⁵⁴⁾ 判密直司事로 승진하였다.¹⁵⁵⁾ 충선왕 초년에 僉議政丞으로 치사하였다. 충숙왕 8년에 다시 관직에 나아가 守政丞에 임명되고, 다시 驪興君¹⁵⁶⁾에 봉하여졌다.

충숙왕 10년 1월에는 許有全, 金脍 등과 함께 원나라에 가서 동왕 7년 이후 吐藩에 유배되어 있는 충선왕을 소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¹⁵⁷⁾ 민지 자신이 황제에게 올리는 표문을 지었다. 이 표문 속에서는 “우리 왕이 다만 실수를 하였을 뿐이요 다른 뜻은 없음을 가급히 여기고, 늙은이들이 제 일신을 생각하지 않고 이 먼 곳까지 왔음을 가련히 여기어 우리 왕으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여 달라”는 애절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는 원나라 都堂에도 글을 보내 애원하며 반년 동안이나 원나라에 머물러 있었으나, 심왕 일당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다.¹⁵⁸⁾ 즉 충선왕은 충숙왕 7년에 원나라의 仁宗이 죽자, 英宗의 총애를 받던 고려 출신 환관 任伯顔秃古思의 모략으로 10월에 형부에 간

148)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王 21년 1월 己巳.

149)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王 21년 8월 癸丑.

150)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王 21년 9월 乙未.

151)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王 25년 9월 己亥.

152)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王 24년 5월 庚寅.

153)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王 24년 7월 戊戌.

154) 『高麗史』 권32 世家32 忠烈王 28년 6월 乙亥.

155) 『高麗史』 권32 世家32 忠烈王 29년 12월 壬申.

156) 『高麗史』 권34 世家34 忠肅王 3년 4월 丁亥.

157) 『高麗史』 권35 世家35 忠肅王 10년 1월 壬子; 『高麗史節要』 권24 忠肅王 10년 1월; 『高麗史』 권109 列傳22 許有全傳.

158) 『高麗史』 권107 列傳20 閔漬傳; 「閔漬墓誌」.

했다가 얼마 후 머리를 깎이고 石佛寺로 유치되고, 12월에는 불경을 공부하라는 명목을 붙여 토변의 撒思吉 지방으로 유배되었다. 사실 충선왕은 원나라에 체류하면서 武宗과 仁宗을 황제로 옹립하는데 큰 기여를 한 덕에 고려의 왕이면서 원제국 2인자의 직위를 누리다가 인종이 죽자 유배된 것이다. 원제국의 권력 투쟁에 깊이 빠졌다가 이러한 화를 초래한 것이다. 충숙왕 10년 2월에는 西蕃의 朶思麻 지방으로 옮겨지고, 8월에 英宗이 피살되고 晉宗(泰定皇帝)이 즉위하여 대사령이 내려져 9월에 유배에서 풀려나, 11월에 燕京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충선왕은 민지 등이 귀국한 후 곧 풀려난 것이다.

충숙왕 8년에 守僉議政丞으로 치사하고,¹⁵⁹⁾ 충선왕을 소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원나라에 다녀온 공로로 동왕 12년에 推誠守正保理功臣 壁上三韓三重大匡 僉議政丞 右文館大提學 驪興君으로 봉해지고, 다음해에 判僉議府事 驪興府院君으로 加封되었다.¹⁶⁰⁾

충숙왕 13년에 79세로 사망하였다.¹⁶¹⁾ 충숙왕은 부음을 듣자 슬퍼하고, 유사에게 葬事를 주관토록 명하였다. 시호는 文仁이다.

2) 충숙왕 ~ 공민왕

(1) 閔祥正

민지의 1남이다. 충렬왕 7년에 출생하였다. 동왕 27년에 급제하고, 그 이듬해에 殿試에 급제하였다. 碩州, 寶城, 江華의 수령을 역임하고, 서해도와 양광도의 안렴사를 지냈는데, 가는 곳 마다 명성과 치적을 올렸다. 양광도 안렴사로 있을 때는 어떤 자가 권세 있고 지위 높은 자에게 뇌물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전을 시켜 조사해서 공문과 함께 國驢所에 보내므로 토호의 유력한 자들이 기가 죽어서 감히 법령을 위반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충숙왕 대에 掌書이 되었는데, 한번은 무슨 일이 있어서 탄핵을 받

159) 『高麗史』 권35 世家35 忠肅王 8년 10월 庚戌.

160) 『閔漬墓誌』.

161) 『高麗史節要』 권24 忠肅王 13년.

게 되었으나, 충숙왕은 용서하여 다시 사헌부에 가서 일을 보게 하였다. 風憲官이 용서를 받고 제 직무를 다시 맡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인데, 민상정은 충숙왕에게 신임을 받았던 것 같다.¹⁶²⁾

충숙왕 복위 1년 2월에 원나라 文宗이 留守 寶守와 전 理問郎中 蔣伯祥 등을 고려에 보내서 이미 1월 3일에 상왕의 복위를 명하였다고 하자, 충혜왕과 좌우 신하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 장백상이 국새를 회수하고 모든 창고를 봉하게 되자, 충혜왕은 원나라로 가고 원나라에 있던 상왕인 충숙왕이 복위하면서, 민상정을 知密直司事로 삼고,¹⁶³⁾ 征東省의 사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¹⁶⁴⁾ 이어 충숙왕과 충혜왕의 사이를 나쁘게 한 죄를 추궁하는 충혜왕의 嬖幸들인 정승 尹碩, 재상 孫琦 등의 獄事가 일어나자 충숙왕은 원나라에 있으면서 민상정과 趙炎輝, 蔣伯祥, 蔣仁守 등을 보내서 그들을 순군옥에 가두고 문초하도록 하였다.¹⁶⁵⁾ 그러나 수개월 후에 趙頤의 도당이 원나라 조정에 원통하다고 하소하였기 때문에 원나라에서 客省太史 都赤에게 재심의를 하라고 보내서 민상정, 장백상 등을 행성에 가두었다.¹⁶⁶⁾ 백관들이 서면으로 장백상의 불법 행위를 도적에게 고소하자, 장백상 등이 모두 뇌물을 받아서 법을 위반하였다는 죄로 판결되어 법기관에 이송되고, 장백상은 도적이 잡아 원으로 돌아갔다.¹⁶⁷⁾ 민상정 만은 뇌물에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감찰(감찰사)의 장관(대사헌)으로 임명하여 그의 명예를 돌아주었다.¹⁶⁸⁾ 또 그는 “충혜왕은 왕의 노릇을 할 수 없다”고 원나라 황제에게 진소하기도 하였다.¹⁶⁹⁾

그는 관직이 贊成事에까지 이르러 관리의 선발, 내신, 임명을 주관

162) 『高麗史節要』 권24 忠肅王 10년 10월.

163) 『高麗史』 권35 世家35 忠肅王 복위 원년 2월 甲子.

164) 『高麗史節要』 권25 忠肅王 복위 원년 2월.

165) 『高麗史』 권35 世家35 忠肅王 복위 원년 2월 戊辰 ; 『高麗史』 권124 列傳37 嬖幸2 尹碩傳.

166) 『高麗史』 권35 世家35 忠肅王 복위 원년 5월 癸未.

167) 『高麗史』 권35 世家35 忠肅王 복위 원년 5월 乙酉·丙戌.

168) 『高麗史』 권107 列傳20 閔漬 附 閔祥正傳.

169) 『高麗史』 권111 列傳24 宋天逢傳.

하였는데, 쓸데없는 관직들은 축소하여 옛 관제를 회복시켰다. 충숙왕 복위 5년에는 찬성사로서 至元으로 開元한데 대하여 하례하기 위하여 원나라에 사절로 파견되었다.¹⁷⁰⁾ 공민왕 1년에 72세로 사망하였다.¹⁷¹⁾ 시호는 忠烈이다. 『閔漬妻申氏墓誌』에는 충숙왕 복위 5년 그의 관직이 重大臣 僉議贊成事 藝文館大提學 知春秋館事 判版圖司事 上護軍이라고 하였고, 『여흥민씨세보』에는 三重大臣 都僉議贊成事 藝文館大提學 知春秋館事 判版圖司事 上護軍을 지냈다고 하였다.父에 이어 재상을 지냈다.

그는 성품이 억세고 모져서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았고, 친척간이라고 하더라도 조금도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고 한다.¹⁷²⁾ 충숙왕대에 찬성사로 많은 활약을 했는데,¹⁷³⁾ 충숙왕도 성격이 엄하고 군세에서 측근들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면 서로 성격이 부합되었던 것 같다.

(2) 閔頤

민중유의 1남이고, 원종 11년에 출생하였다.¹⁷⁴⁾ 자는 樂全, 호는 芸齋居士이다. 그는 나서부터 외모가 출중하였다. 외조부 俞千遇가 그를 보고 기특하게 여겨 후일에 귀하게 되겠다고 하였으며, 재상을 지낸 이모부 金頤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집에서 키웠다. 나라 풍속에 어린 아동들은 의례히 스님에게서 句讀法을 배우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面首란 것이 있어서 스님이든 속인이든 간에 모두 그를 받들어 仙郎이라고 불렀는데, 따르는 자가 때로는 천 명에 이르는 때도 있었다. 그 풍속은 신라에서 시작된 것이다. 민적은 10세 때에 집에서 나와 절에 가서 글을 배웠는데, 천성이 영민하여 한 번 배우면 곧 그 뜻을 환하

170) 『高麗史』 권35 世家35 忠肅王 복위 5년 1월 乙亥 ; 『高麗史節要』 권 25 忠肅王 복위 5년 정월.

171) 『高麗史』 권107 列傳20 閔漬 附 閔祥正傳.

172) 『高麗史』 권107 列傳20 閔漬 附 閔祥正傳.

173) 『高麗史』 권35 世家35 忠肅王 복위 7년 7월 乙卯.

174) 中樞院, 1969, 『閔頤墓誌』, 『앞 책』 上, 483~485쪽.

게 알았다. 눈썹이 그린 듯하였고, 풍채가 아름다웠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모두 그를 사랑하였다. 충렬왕이 그 소문을 듣고 불러 보았는데, 궁중에서는 그를 國仙이라고 불렀다고 한다.¹⁷⁵⁾

충렬왕 11년 과거에 급제하였다. 처음 東宮僚屬으로 임명되고 여러 관직을 거쳐 僉議注書로 되었다가 秘書郎으로 전임되고, 다시 옮겨서 軍簿正郎으로 되었으며, 후에 版圖正郎 겸 世子宮門郎이 되었다.

충선왕이 왕위를 물려받은 후 秘書少尹이 되었다가 충렬왕이 복위 하자 예에 따라 면직되고, 충선왕을 따라 연경에 가서 4년간을 지냈다. 후에 羅州牧使가 되었다. 충선왕이 다시 왕위를 계승하자 소환되어 典儀副승이 되었다가 選部議郎으로 전임되고, 知製教를 거쳐 密直承旨 겸 司憲執義로 승진되었다. 그 후 얼마 안가서 通憲大夫로 平壤尹으로 나갔다가,¹⁷⁶⁾ 파면되어 한가한 세월을 보냈다. 충선왕 2년 8월에는 檢校宰臣으로 녹봉을 받았다.¹⁷⁷⁾

충숙왕이 즉위한 후 選部典書, 寶文閣提學,¹⁷⁸⁾ 上護軍으로 임명되었다가 이듬해에 密直副使가 되고, 또 民部典書, 大司憲이 되었다. 동왕 3년에 同知密直司事가 되고,¹⁷⁹⁾ 동왕 5년 12월에 賀正使로 원나라에 갔을 때,¹⁸⁰⁾ 충선왕이 원나라 서울에 있었는데 예전에 요속이라 하여 비할 바 없는 대우를 받았다. 충선왕은 옛 신하들을 말할 때마다 민적은 장중하고 자잘하지 않으며 故家の 풍류가 있다고 하고, 이때 하정사로 연경에 오자 민적을引見하여 앞자리 가까운 곁에 앉게 하고 서로 말하면서 布衣의交를 나누었다고 한다. 동왕 6년 2월에 다시 동지밀직사사가 되고,¹⁸¹⁾ 후에 驪興君에 봉해졌다. 충혜왕 대에 密直司使, 進賢館大提學, 知春秋館事가 되었다. 이때 왕과 공주를 알현할 때 마

175) 『高麗史』 권108 列傳21 閔宗儒 附 閔頌傳.
 176) 『高麗史』 권33 世家33 忠宣王 1년 12월 甲寅.
 177) 『高麗史』 권80 志34 食邑3.
 178) 『高麗史』 권34 世家34 忠肅王 1년 1월 戊戌.
 179) 『高麗史』 권34 世家34 忠肅王 3년 4월 丁亥.
 180) 『高麗史』 권34 世家34 忠肅王 5년 12월 己丑.
 181) 『高麗史』 권34 世家34 忠肅王 6년 2월 戊戌.

다 왕과 공주는 예를 가추고 민적에게 예의를 표하였다고 한다.¹⁸²⁾

李齊賢이 찬한 「閔頤墓誌」에는 그가 匡靖大夫 密直司使 進賢館大提學 知春秋館事 上護軍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父에 이어 재상을 지냈다. 충숙왕 복위 5년 1월에 67세로 사망하고,¹⁸³⁾ 시호는 文順이다.

그는 운재거사라고 自號하며, 집에 동산을 만들고 꽃시절마다 손님을 맞아 술을 마시고 시를 짓고 琴을 타는 것으로 낙을 삼았다.¹⁸⁴⁾ 어진 사람을 좋아하고 선비를 사랑하였으며, 고독하고 빈한한 사람들과 후생들에 대하여 더욱 인정 있게 대하였다고 한다.¹⁸⁵⁾

(3) 閔思平

민적의 1남으로, 충렬왕 21년에 태어났다. 초명은 卍이고, 자는 坦夫이며, 호는 及菴이다. 5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조부인 민종유의 슬하에서 성장하였는데, 어려서부터 자질이 비범하고 國량이 컸다. 貞烈公 金倫은 평소 사람을 잘 알아보는 명성이 있었는데, 민사평을 사위로 삼았다. 김륜은 빈객을 좋아하였으므로 당시의 많은 명사가 그를 좇아 교류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보고 느끼는 바가 많아 학업이 날로 발전하였다.¹⁸⁶⁾

처음 奉先庫判官으로 보임되었다가 무반으로 옮겨 散員이 되었으며 別將에 승진되었다. 그러나 무관직을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독서에 더욱 힘써 충숙왕 2년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충숙왕이 원나라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동왕 12년에야 고려로 돌아왔는데, 예문관과 춘추관

182) 『高麗史』 권108 列傳21 閔宗儒 附 閔頤傳 ; 「閔頤墓誌」.

183) 「閔頤墓誌」.

184) 유천우는 정원을 화려하게 꾸며 놓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원종은 유천우의 집 안에 있는 정자에 놀러갔는데, 이 때 세자가 따라가서 놀면서 그곳의 경치가 깨끗하고 아름다움을 보고 시 한 수를 지어 남기었다. 이에 유천우와 여러 문인들이 세자의 시문에 맞추어 시를 지어 올린 일이 있었다(『高麗史』 권26 世家26 元宗 8년 9월 乙酉). 정원을 가꾸는 전통은 사위인 민종유와 외손인 민적에게로 이어졌다.

185) 『高麗史』 권108 列傳21 閔宗儒 附 閔頤傳 ; 「閔頤墓誌」.

186) 「閔思平墓誌」.

의 수찬에 임명되고, 좌우정언과 헌납을 역임하였다. 충혜왕이 즉위하면서 軍簿正郎과 藝文應敎로 조정에 출입하여 관리의 인선을 논의하는데 참여하였는데, 원칙을 굳건히 지킬 뿐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충숙왕 복위 1년에 충숙왕이 복위하면서 대대적인 관리의 출척을 단행하였는데, 衛尉小尹, 知製敎에 임명되고 奉善大夫에 올랐다. 동왕 복위 5년에 奉常大夫에 오르고, 版圖總郎으로서 慶尙道鹽鐵使가 되어 나가니 백성들이 편안해 하였다. 典校副令, 右文館直提學으로 소환되어 관도총랑에 복직되었으며, 예문관으로 옮겼다가 성균좌주로 승진하였다. 다시 左司議大夫로 옮겼으며 품계가 中顯大夫에서 中正大夫로 올랐고 進賢館大提學이 되었다. 외직으로 나아가 전라도 안렴사가 되니 선정을 베풀었다는 칭송이 자자하였다. 내직으로 들어와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되고, 춘추관 수찬이 되었으며 품계가 正順大夫에서 奉翊大夫로 올랐다. 儒士를 싫어하던 충혜왕 대에는 복위 3년에 判典敎로서 成均試를 주관하여 金仁瑄 등 93인을 선발하였다. 충목왕이 즉위하자 典理判書에 임명되었다가 감찰대부로 자리를 옮겼다.¹⁸⁷⁾ 동왕 1년에는 密直으로 들어가서 提學이 되어 上護軍을 겸하였으며, 副使·知司事를 거쳐 이듬해에 驪興君에 봉해졌다.

원나라 황제가 충정왕을 입조하라고 명하자, 원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전 찬성사 민사평도 수행하였다.¹⁸⁸⁾ 7월에 충정왕이 왕위에 오르자 수행한 공로로 僉議參理, 예문관대제학, 지춘추관사로 임명되고, 政房提調,¹⁸⁹⁾ 輸誠秉義協贊功臣 都僉議參理,¹⁹⁰⁾ 師傅商議¹⁹¹⁾가 되었다. 이어 贊成事商議會議都監사가 되었다.

奇皇后와 奇氏勢力은 위험한 충혜왕의 아우인 江陵大君 王禕(공민왕)보다는 조정하기 쉬운 어린 충정왕을 선택한 것인데, 北殿의 과부인 충혜왕비 德寧公主(元 關西王의 女)와 禧妃 尹氏, 尹王이라고 불릴

187) 『高麗史』 권37 世家37 忠穆王 즉위년 6월 乙卯·10월 甲子.

188) 『高麗史』 권37 世家37 忠定王 1년 2월 甲戌. 여기서 閱評은 민사평이다.

189) 『高麗史』 권37 世家37 忠定王 1년 윤7월 丁卯. 10월 丁酉.

190) 『高麗史』 권37 世家37 忠定王 1년 윤7월 己巳.

191) 『高麗史』 권37 世家37 忠定王 2년 1월 庚辰.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자랑하던 희비의 고종사촌 都僉議 尹時遇,¹⁹²⁾ 기황후의 오빠 奇轍이 어린 충정왕을 대신하여 권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충정왕 3년에는 尹澤,¹⁹³⁾ 李承老¹⁹⁴⁾ 등이 “충정왕은 나이가 어려 국정을 감당할 수 없으니 폐위해 달라”고 원나라에 요청하자, 충정왕 2년부터 심해지기 시작한 왜구문제와 윤시우와 기철과의 갈등 등으로 고민하던 원나라의 順帝와 기황후는 10월에 충정왕을 폐위시키고, 강릉대군을 왕으로 책봉하였다. 이는 숙부가 어린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일종의 정변이었다. 왕위에서 물러난 충정왕은 강화에 가서 다음해 3월에 14세에 독살되었다.¹⁹⁵⁾ 충정왕이 폐위되어 강화로 갈 때 典校令 申德麟 등 몇 명의 신하가 따라 나섰으나, 그들을 추격하여 모두 잡아다가 巡軍에 가두고 朴思愼만을 따라 가게 하였다. 그러므로 왕은 조석의 끼니도 충분하지 못하고 왕래까지도 두절되었으므로 괴롭고 시름에 찬 나머지 소리쳐서 울고 있었으며,¹⁹⁶⁾ 부고가 서울에 들려오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¹⁹⁷⁾ 충정왕은 12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으므로 희비가 안에서 세도를 쓰고 간신과 외척이 밖에서 작간을 하였으며, 여러 대신들도 나라의 일을 돌보지 않고 서로 과당을 짓고 사욕을 채우다가 그것이 화단이 되어 나중에 왕이 불행하게 독살을 당하게까지 이르렀다.¹⁹⁸⁾ 이에 희비의 외숙인 민사평은

192) 『高麗史』 권124 列傳37 嬖幸2 襄佐傳.

193) 윤택은 충숙왕이 강릉대군을 부탁하여 두었던 사람인데(『高麗史』 권38 世家38 恭愍王 즉위년), 강릉대군의 즉위에 노력했던 儒者였다. 신망이 높던 강릉대군을 추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윤택을 비롯하여 이세현, 이곡, 이승로 등 유자들이었다.

194) 이승로는 충정왕 1년에 宣州勾堂으로 정직된 일이 있었고(『高麗史』 권37 世家37 忠定王 1년 7월 甲辰), 공민왕 때에는 江陽伯에 봉해졌다(『高麗史』 권114 列傳27 李承老傳).

195) 『高麗史』 권37 世家37 忠定王 3년 10월 壬午.

196) 충정왕의 모후인 禧妃도 이렇게 되자 공민왕에게 청하여 가서 보고 며칠을 함께 지내다 돌아왔다(『高麗史』 권89 列傳2 后妃2 禧妃尹氏傳 ; 『高麗史節要』 권26 恭愍王 1년 3월 辛亥).

197) 『高麗史』 권38 世家38 恭愍王 1년 3월 辛亥.

198) 『高麗史』 권37 世家37 忠定王 3년 10월 史臣評.

관직을 버리고 한가로이 8년을 지내다 생을 마쳤다.¹⁹⁹⁾

門人 李達衷²⁰⁰⁾이 찬한 「閔思平墓誌」에는 벼슬이 輸誠秉義協贊功臣 重大匡 都僉議贊成事 商議會議都監事 進賢館大提學 知春秋館事 上護軍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민종유, 민적에 이어 3대가 재상을 지낸 것이다. 공민왕 8년에 65세로 사망하였다.²⁰¹⁾ 공민왕은 부음을 듣고 한탄하며 文溫이라는 시호를 내렸다.²⁰²⁾

그는 집안이 대대로 혁혁한 벼슬이 이어졌고 세운 공업이 창대하였으나 조금도 자랑하지 않고 내색이 없었다. 성품과 자질이 온아하여 친족과 인척을 대하는 데도 화기에애하고 정이 돈독하였다. 비록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있어도 말로 표현을 하지 않았으며, 마침내는 상대방이 부끄러워하며 그에게 탄복하였다. 또 벼들과 사귀기를 좋아하였다. 관직에 있으면서 정사를 돌볼 때에도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없이 모두 의리에 맞게 처리하였으며, 자기의 재능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다. 중용을 지켜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고, 사람들과 화합하되 휩쓸리지 않았다. 대개 시와 술로 自樂하였던 마음이 넓은 군자였다고 당시 평가되었다.²⁰³⁾

(4) 閔愉

민적의 2남이다. 초명은 曲出篤이고, 호는 思菴이며, 충혜왕 1년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한림학사, 提學을 거쳐 大提學에 오르고, 驪興君에 봉해졌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벼슬이 提學에 이르렀고, 驪城君에 봉함을 받았으며, 공민왕조에 학사 朱士雍과 함께 辛屯의 난을 피하여 童城縣(공양왕 대 通津縣에 來屬)에 터를 잡아 살았다고 하였다.

당시 공민왕은 개혁을 단행하였다. 대외적으로 고려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한 자신의 왕위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199) 『高麗史』 권108 列傳21 閔宗儒 附 閔思平傳 ; 「閔思平墓誌」.

200) 『高麗史』 권112 列傳25 李達衷傳.

201) 『高麗史』 권39 世家39 恭愍王 8년 7월 戊申.

202) 「閔思平墓誌」.

203) 『高麗史』 권108 列傳21 閔宗儒 附 閔思平傳 ; 「閔思平墓誌」.

공민왕은 동왕 5년에 친위정변을 일으켜 기황후의 세를 믿고 온갖 횡포를 자행하던 德城府院君 奇轍을 위시한 親元派를 일소하고,²⁰⁴⁾ 원의 직속기관인 정동행성의 형벌기구로 고려의 내정에 간섭해온 征東行中書省理問所을 철폐하고,²⁰⁵⁾ 압록강을 건너 원의 婆娑府 등 3개 요충지를 격파하고,²⁰⁶⁾ 원나라 연호 사용을 중지시키고,²⁰⁷⁾ 원 간섭기에 격하된 고려의 관직제도를 황제국의 위상에 걸맞도록 복원하고,²⁰⁸⁾ 고종대에 원에 빼앗긴 雙城總管府를 무력으로 회복하였다.²⁰⁹⁾ 이러한 일련의 反元政治로 인해 원종 11년 5월 강화로부터 개경으로 환도한 이후부터 시작된 원나라의 간접 통치는 86년 만인 공민왕 5년에 종식되었다.

대내적으로는 우선 이색의 건의에 따라 政房을 폐지하여 인사권을 이부와 병부로 환원시켰다. 또 개혁정치の実시가 권문세족과는 관련이 없는 인물을 등용해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자신을 대신하여 숙청을 지휘할 사람으로 왕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가장 적은 미천한 출신의 승려 辛旽(遍照)를 선발하여 師傅로 삼고,²¹⁰⁾ 領都僉議使司事(영도첨의, 도첨의)라는 직을 주어 국정을 총괄하게 하였다.²¹¹⁾ 신돈은 權王으로 인식될 정도로 수상인 侍中의 위에서 정무권·군통수권·감찰권·승정권을 장악하였다. 공민왕은 자기에게 부담으로 다가온 권세가, 문벌, 주류 무장 세력들을 숙청하는 악역을 신돈에게 맡긴 것이다. 이에 신돈은 왕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왕권의 대행자로서 개혁을 추진하여 많은 사람들을 좌천시키거나 파면 또는 유배시키고 상당수를 죽였다. 숙청 대상은 권력을 장악해온 주류 공신, 주류 무장, 명문세족,

204) 『高麗史』 권39 世家39 恭愍王 5년 5월 丁酉 ; 『高麗史』 권131 列傳 44 叛逆5 奇轍傳.

205) 『高麗史』 권39 世家39 恭愍王 5년 5월 丁酉.

206) 『高麗史』 권39 世家39 恭愍王 5년 6월 癸丑.

207) 『高麗史』 권39 世家39 恭愍王 5년 6월 乙亥.

208) 『高麗史』 권39 世家39 恭愍王 5년 7월 丁亥.

209) 『高麗史』 권39 世家39 恭愍王 5년 7월 丁亥.

210) 『高麗史』 권41 世家41 恭愍王 14년 5월.

211) 『高麗史』 권41 世家41 恭愍王 14년 12월 丁丑.

외척을 망라하였다. 특히 최영·경천흥 등 전장을 누비며 무공을 세워 공신이 되고 권력을 장악한 무장들이었다. 문무반을 막론하고 명문세족 집안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신돈은 문벌이 한미한 자를 등용하고, 田民辨整都監을 설치하여 권문세족들이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원래 소유주에게 반환하거나 해방시켜 주었다. 이로 인해 그는 일반 백성들로부터 성인이라는 칭호까지 듣기도 하였다.²¹²⁾ 이처럼 신돈이 실시한 개혁의 핵심은 강압적으로 빼앗은 토지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가려내서 바로 잡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이에 대한 부작용도 많았다. 이에 대해 벼슬아치 집안인 土族은 대체로 문반이나 무반을 막론하고 반발하였다. 한편 도평의사사를 무력화 시키는 등 권력을 농단하던 신돈도 자신의 집권이 한시적임을 인식했고,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세력이 커지자 결국 공민왕에 의해 반역죄로 엮어져 처형되고 말았다.²¹³⁾ 신돈은 주류공신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지배층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공민왕은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있었으니, 이는 공민왕의 고도의 정치술이었다.

신돈의 집권으로 가장 충격을 받은 부류는 유자였으며, 노비 출신의 천한 승려가 집권자가 된 것은 유교와 유자에게는 커다란 위기였다. 이에 따라 당시 유학계를 대표하던 이제현, 이인복, 유숙, 원숭수 등은 신돈을 반대했다. 이존오와 정추 등은 상소문을 올려 신돈을 탄핵하다 쫓겨났다. 민사평의 외손 金齊顔도 공민왕 17년 10월에 김정, 김흥조, 조사공, 유사의, 김귀보, 이원림, 윤희중 등과 함께 신돈을 처단할 것을 꾀하다가 사전에 누설되어 순군옥에 갇혔다가 신돈이 사람을 시켜 목을 매여 죽었다.²¹⁴⁾ 문사와 유자의 으뜸인 대제학이었던 민유로서도 심적 갈등이 심했을 것이고, 결국 벼슬을 버리고 은둔의 길을 택한 것이다. 이는 성리학자의 신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212) 『高麗史』 권132 列傳45 叛逆6 辛旽傳.

213) 『高麗史』 권43 世家43 恭愍王 20년 7월 辛酉.

214) 『高麗史』 권104 列傳17 金方慶 附 金齊顔傳 ; 『高麗史』 권132 列傳45 叛逆6 辛旽傳.

하여튼 민유와 한림학사를 지낸 주사옹의 집 사이는 10여 리였는데, 지팡이와 짚신으로 서로 방문하여 날마다 시와 술로 즐거워하였다. 그가 지은 시에 “가을이 가고 와서 흥이 한없다. 향긋한 벼, 살찐 고기 곳마다 같다. 배 불룩한 질병에 막걸리 담고, 南村翁과 北村翁이 마주했다.”라고 하였다.²¹⁵⁾ 송시열의 『宋子大全』에도 민유는 고려가 곧 망할 줄을 알고 부원군으로서 향리에 퇴거한 다음 我朝에 들어와서는 벼슬을 하지 않고 살다가 그대로 鳳翔里에서 사망하였다고 하였다.²¹⁶⁾ 成海應의 『研經齋全集』에도 민유는 고려가 다한 것을 보고 부원군으로 통진 봉상리로 퇴거하여 아조에 不仕하다 봉상리에서 사망하였다고 하였다.²¹⁷⁾ 작자 미상의 『杜門洞七十二賢錄』에도 민유는 부원군으로 국운이 다한 것을 보고 통진 봉상리로 퇴거하여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고 하였다.²¹⁸⁾

그는 당시 士類들로부터 신망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며, 여기에는 그의 처가가 安珦의 후손이라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杜院表節祠에 배향되어 靖節享祀되었다.

(5) 閔忭

민적의 3남이다. 초명은 金剛이고, 호는 捷閒堂이다. 충혜왕 1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충혜왕 대에 여러 관직을 거쳐 左司議大夫가 되었다가, 충정왕 초에 密直左副代言,²¹⁹⁾ 密直代言(왕의 비서인 승지)으로 임명되고, 공민왕 대에 大匡輔國 驪興君으로 봉해졌다.²²⁰⁾ 典理判書를 지내고,²²¹⁾ 우왕 3년에 사망하였으며,²²²⁾ 시호는 文度이다. 한편 세종은 동왕 29년 7월에 경기감사에게 유시하여 여흥 神勒寺에는 민변의

215) 『新增東國輿地勝覽』 通津縣 寓居.

216) 『宋子大全』 권214 傳 龍巖 閔埜傳.

217) 『研經齋全集』 권58 蘭實史料 1 羅麗遺民傳.

218) 『騎牛先生文集』 권2 附錄 杜門洞七十二賢錄.

219) 『高麗史』 권37 世家37 忠定王 1년 10월 戊子.

220) 『高麗史』 권108 列傳21 閔宗儒 附 閔忭傳.

221) 『太祖實錄』 권10, 太祖 5년 12월 丁亥 ; 閔開卒記.

222) 『高麗史節要』 권30 禔王 3년 5월.

영정을 모셨는데, 의지 없는 雜僧들이 잘 수호하지 못하여 형편없이 되었다기에 전라도 장성의 白巖寺 승려인 學蒙을 들어가 살게 하였으니, 잘 安接시켜 주게 하라고 명하였다.²²³⁾ 세종은 민변이 어머니 원경왕후의 조부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해 준 것이다.

민변은 사람됨이 엄격하고 정직하여 정실에 끌리지 않았고, 꼭 법에 맞게 행세하였다고 한다.²²⁴⁾

(6) 閔煥

민적의 4남이고, 초명은 忙哥篤이다. 충혜왕의 倖臣으로 여러 벼슬을 거쳐 代言에 올랐으며, 또 禧妃의 외숙으로서 그 권세를 믿고 횡포한 행동을 많이 하였다. 嬖幸 寧夫金이 강릉도 안렴사로 있을 때 인삼을 요구하였으나 인삼이 귀하어 입수량이 적었으므로 왕에게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조정에서 벼슬하던 선비들이 자기 고향으로 퇴거한 자에게 職稅를 거두어 들여 6품 이상은 포목 150필, 7품 이하는 100필, 散職은 15필을 받았다. 이에 어떤 자는 가족을 데리고 산으로 들어가고, 어떤 자는 배를 타고 도망하였다.²²⁵⁾ 그 후 동계 존무사 崔昌義가 왕에게 아뢰어 5도의 직세를 폐지하고 징수한 것을 그 주인에게 전부 반환하여 주었다. 또 寄上의 노비, 投屬의 노비, 선대의 왕이 준 노비, 소유자가 서로 매매한 노비를 나라에 바치도록 하였다. 또 불량배를 각 도에 파견하여 산세, 바닷세를 징수하고 무당과 장인들에게도 貢布를 징수하자 백성들이 그 고통을 견디어 내지 못하였다. 문제가 되자 왕이 노하여 민환을 내쫓았다가 미구에 소환하여 다시 총애하였다.

충혜왕 복위 4년에 기황후는 순제를 움직여 특수요원들을 고려에 파견하여 원나라와 기황후에 반항하는 충혜왕을 원나라로 납치하여²²⁶⁾ 살해하였다.²²⁷⁾ 이때 민환도 왕의 폐행으로서 檻車(죄인이 타는 수레)

223) 『世宗實錄』 권117, 世宗 29년 7월 己亥.

224) 『高麗史』 권108 列傳21 閔宗儒 附 閔怵傳.

225) 『高麗史』 권79 志33 食貨2.

226) 『高麗史』 권36 世家36 忠惠王 복위 4년 11월 甲申.

227) 『高麗史』 권36 世家36 忠惠王 복위 5년 1월 戊辰.

에 실려 원나라로 압송되어,²²⁸⁾ 辰州路로 유배되었다.²²⁹⁾ 후에 귀국하여 同知密直司사가 되었다.

공민왕 10년 홍건적의 2차 침입 때 上護軍(上將軍)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11년에 總兵官 鄭世雲을 죽이고, 李芳實과 함께 처형당하였다.²³⁰⁾ 이때 도원수 安祐, 원수 金得培²³¹⁾ · 李芳實 · 민환 · 金琳²³²⁾ 등이 처형되었다.²³³⁾ 공민왕 측 입장에서 기록한 史官들의 기록으로 본 이 사건의 전말은 공민왕 11년 1월에 金鏞이 “정세운을 죽여라. 정세운은 평소에 경들을 꺼렸다. 적을 격파한 후 경들은 반드시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어찌 먼저 도모하지 않겠는가”라는 왕의 밀서를 위조하여 몰래 안우, 이방실, 김득배에게 지시하여 본디 왕의 충애를 다두던 홍건적을 평정한 총병관 정세운을 죽였던 것이다.²³⁴⁾ 또 이때 김용은 안우, 김득배, 이방실 등 3원수가 큰 공을 세워 왕의 신임이 두터워질 것을 두려워하여 안우 등을 시켜 정세운을 죽이게 한 후 그것을 빙자하여 이들에게 죄를 씌워 모두 죽일 것을 꾀하였다는 것이다.²³⁵⁾ 그러나 공민왕은 신하들이 지나친 권세를 지니거나 대중의 지지를 받는 영웅으로 부각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김용에게 밀지를 써주고 친위정변을 일으키도록 유도했다고 추정되고 있다.²³⁶⁾ 공민왕은 의심

228) 『高麗史』 권36 世家36 忠惠王 복위 4년 12월 辛丑 ; 『高麗史』 권124 列傳37 嬖幸2 康允忠傳.

229) 『高麗史』 권37 世家37 忠穆王 즉위년 5월 丁巳.

230) 『高麗史』 권124 列傳37 嬖幸2 閔煥傳.

231) 鄭夢周는 김득배가 주관한 과거에 장원급제한 門生이었는데, 공민왕에게 간청하여 시신을 수습하여 묻고 제사를 지냈다. 정몽주는 祭文에서 무슨 까닭에 전쟁에서 흘린 땀이 아직 마르지도 않고, 승리의 노래 소리가 아직 그치기도 전에 마침내 태산 같은 공로를 갈끝에 피로 화하게 하였는가? 이것이 내가 피눈물로써 온 세상에 호소하는 바라고 애통해 하였다(『高麗史』 권113 列傳 26 安祐 附 金得培傳).

232) 김립은 김용의 조카로 밀서를 안우 등에게 전달한 사람인데, 김용은 비밀을 누설할까 싶어 밀서를 전달한 김립을 살해하면서까지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였다.

233) 『高麗史』 권40 世家40 恭愍王 11년 3월 丁未.

234) 『高麗史』 권40 世家40 恭愍王 11년 정월 己巳.

235) 『高麗史』 권113 列傳26 安祐傳 ; 『高麗史』 권131 列傳44 叛逆5 金鏞傳.

과 시기심이 많아 심복이나 대신이라도 권력이 너무 커지면 반드시 꺼려서 제거하였다.

『여흥민씨세보』에는 그의 관직이 銀青光祿大夫 樞密院副使 上護軍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아무튼 민환은 문벌가문에서 막내로 귀하게 태어나 세파를 이기지 못하고 왕권에 이용만 당하며 艱難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다. 이는 젊어서 惡少輩들과 어울리면서 형들처럼 과거에 급제하여 儒生의 길을 걷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7) 閔璿

민상정의 5남이고, 자는 仲五이다. 20여 세에 원나라 성균관의 생도가 되어 공부하다 미구에 省親하겠다고 귀국하였다. 충혜왕 복위 1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版圖正郎을 거쳐 奉翊大夫, 版圖判書에 이르렀다. 우왕 2년에 사망하였다. 그 후 門下贊成事에 추증되었다. 李成桂의 4남인 懷安君 李芳幹의 장인이다.

(8) 閔伯萱

閔咸啓²³⁷⁾의 1남으로, 민지의 증손이다. 우왕 즉위년에 密直司使 張子濫과 함께 典工判書로 공민왕의 訃音을 고하고, 시호를 내려줄 것과 왕위계승을 청하러 명나라에 갔다.²³⁸⁾ 가던 중 명나라 사신 林密과 蔡斌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다 開州站에서 호송관 金義(胡人)가 채빈과 그의 아들을 살해하고 임밀을 붙잡아 가지고 北元으로 달아났다는 소식을 듣고,²³⁹⁾ 두려워서 돌아왔다.²⁴⁰⁾ 동왕 6년에는 왜구가 능성, 화순

236) 김창현, 2006, 『앞 책』, 148쪽.

237) 민환계는 충혜왕이 三峴에 새 궁전을 신축할 때 閔璿과 함께 참여한 書雲副正 閔城季와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高麗史』 권124 列傳37 嬖幸2 盧英瑞傳).

238) 『高麗史』 권133 列傳46 辛禰 즉위년 11월.

239) 이인임이 공민왕의 시해에 대해 입을 막으려고 김의에게 지시하여 명나라 사신 채빈을 죽이도록 한 것이다(『高麗史』 권126 列傳39 姦臣2 李仁任傳).

등지에 침입하자 원수 崔公哲·金用輝·李元桂·金斯革·鄭地·吳彦·王承寶·都興 등과 함께 전라도에서 왜구를 방어하였고,²⁴¹⁾ 이해 10월에는 密直副使로 西京都副元帥가 되어 왜구를 방어하였다.²⁴²⁾ 동왕 9년에 知門下商議로 재임 중 사망하였다.²⁴³⁾ 세조대에 손자 閔發이 이 시애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精忠敵愾功臣 3등에 책록되자,²⁴⁴⁾ 三韓三重大臣 輔國壁上功臣 門下侍中 驪源君에 추봉되었다.

3. 교체기(閔霽)

민변의 1남이고, 충숙왕 복위 8년에 출생하였다. 자는 仲晦, 호는 漁隱이다. 공민왕 6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國學直學에 보직되고, 春秋館 檢閱, 典理正郎, 知制敎, 成均司藝,²⁴⁵⁾ 典校副令을 지냈다. 우왕대에 知春州事로 나아가서 은혜로운 정사를 베풀었다. 다시 判小府寺事, 禮儀 判書, 密直提學²⁴⁶⁾ 등을 역임하고, 창왕 대에 商議密直司事를 지냈다. 공양왕 1년에 藝文館提學을 역임했으며, 僉書密直司事, 禮曹判書에 이어 開城尹,²⁴⁷⁾ 漢陽尹을 지냈다.²⁴⁸⁾

조선이 건국하자 政堂文學으로 승진하고, 태조 7년에 驪興伯에 봉해지고, 領禮曹事가 되었다. 정종대에 태종이 세자가 되자 門下右政丞으로 승진하고, 조금 뒤에 좌정승이 되었다. 태종이 즉위하자 國舅로서 다시 여흥백으로 봉해지고, 태종 1년에 純忠同德補祚贊化功臣의 호를

240) 『高麗史』 권133 列傳46 辛禡 즉위년 11월. 민백원은 판서로서 우왕 3년에는 중랑장 池遇淵과 토지문제로 판도정랑 李養中에게 소송을 한 일이 있었다(『高麗史』 권133 列傳46 辛禡 3년 12월).

241) 『高麗史』 권134 列傳47 辛禡 6년 3월.

242) 『高麗史』 권134 列傳47 辛禡 6년 10월.

243) 『高麗史』 권135 列傳48 辛禡 9년 5월.

244) 『世祖實錄』 권43, 世祖 13년 9월 壬午.

245) 『高麗史』 권34 世家34 忠肅王 1년 1월 乙巳 ; 『高麗史』 권34 世家34 忠肅王 11년 9월.

246) 『高麗史』 권137 列傳50 辛禡 14년 3월.

247) 『高麗史』 권137 列傳50 辛昌 1년 9월 ; 『高麗史』 권46 世家46 恭讓王 4년 3월 癸酉.

248) 『高麗史』 권108 列傳21 閔宗儒 附 閔霽傳.

받고, 여흥부원군으로 고쳐 봉해졌다. 태종 8년에 병세가 위독해지자 태종이 문병하니 의관을 정제하고 말하는 바가 평시와 같았는데, 옛세만에 70세로 사망하였다. 왕이 슬퍼하여 朝會를 정지하고 親臨하였으며, 文度라는 시호를 내렸다.²⁴⁹⁾ 그의 관직은 純忠同德補祚贊化功臣 大匡輔國崇祿大夫 驪興府院君 修文殿大提學 領藝文春秋館事였다.²⁵⁰⁾ 그는 타고난 자질이 어질고 검소하였다. 資稟이 溫仁淸儉하였으며, 家産을 일삼지 않았다. 존귀와 영화가 극진하였으나 조금도 부귀한 티가 없이 날마다 바둑판과 더불어 스스로 즐기고, 시를 잘 평론하여 蕭然히 出塵의 정취가 있었다고 한다.²⁵¹⁾

IV. 분석

1. 科學及第

출세할 수 있는 길은 나라에 큰 공, 과거급제, 문벌, 혼인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과거급제가 가장 중요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본래 고려는 신분제도가 세습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낮은 신분으로부터 높은 신분으로의 상승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났다. 이 중에서 鄉吏로부터 文班이 되는 경우인데, 본래 문반귀족은 대부분 豪族 출신이었으므로 문반과 향리는 혈통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아 향리가 문반으로 쉽게 상승할 수가 있었다. 과거시험은 이러한 신분변동에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였다. 고려 초 개경에 가까운 지방의 호족들이 점차 문신으로 중앙의 정치무대에 진출하는 수가 늘어남으로써, 이들은 원래 호족이었던 출신지를 본관으로 정하고, 본관은 그들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양광도 황려현에 기반을 둔 강력한 토착세력이었던 여흥 민씨들도 같았을 것이다.

249) 『太宗實錄』 권16, 太宗 8년 9월 庚申 ; 閔霽卒記.

250) 『太宗實錄』 권36, 太宗 18년 11월 甲寅 ; 太宗神道碑文.

251) 『太宗實錄』 권16, 太宗 8년 9월 庚申 ; 閔霽卒記.

여흥 민씨에서도 여러 명의 과거급제자를 배출하였다. 민영모는 인종 16년에 24세로 급제하였다.²⁵²⁾ 민영모가 東堂監試에 응시할 때 賦를 지었는데 격식에 맞지 않아서 同知貢舉 李之氏가 낙제를 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지공거 崔濡가 이 글의 기상이 활달하여 비범한 점이 있으니 榜의 꼬리에 붙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하였다. 詩·賦·頌·策 등의 문학으로써 試取하는 製述業에 급제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후일 최유가 민영모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지은 부가 비록 격식을 틀렸으나 문구에 원대한 기상이 보였는데 노력하기 바란다고 격려하여 주었다. 지공거였던 최유는 어려서부터 영민하고 글을 잘 지었으며, 19세에 급제한 수재로서, 공정하고 청렴하다는 평을 받았던 인물이었다.²⁵³⁾ 후일 민영모가 銓注를 맡았을 때 최유의 손자인 崔祗元, 崔祗禮를 선발 등용하였다고 한다.²⁵⁴⁾ 이처럼 지공거와 급제자의 관계는 단순한 고시관과 수험생의 관계가 아니라 일생을 통하여 각별한 사제 관계를 맺어 고시관을 恩門 또는 座主라 하고, 급제자를 門生이라고 하여 학계 내지 정계에서 운명을 같이 하다시피 하였다.

민영모의 1男인 閔湜은 의종 21년에 金敦中이 주관한 國子監試에서 장원으로 뽑혔다.²⁵⁵⁾ 2남인 閔公珪도 명종 7년에 과거에 급제하였다.²⁵⁶⁾

252) 민영모는 명종 5년 10월에 樞密副使로 지공거가 되어 白龍變 등을 급제시켰고, 10년 6월에도 門下平章事로 지공거가 되어 李得玉 등을 급제시켰다(『高麗史』 권73 志27 選舉1). 지공거는 방을 붙인 후 축하하러 오는 손님을 위하여 3일간 찬치를 베푸는 것이 관습이었다고 한다(『高麗史』 권123 列傳36 驍幸1 林貞杞傳).

253) 『高麗史』 권98 列傳11 崔濡傳.

254) 『高麗史』 권101 列傳14 閔令謨傳. 崔祗元은 4형제가 급제를 하였는데, 舊制에는 세 아들이 급제하면 어머니에게 쌀 27석을 주었는데, 네 아들이 급제하였기 때문에 加常하였다는 일화가 전할 정도로 수재들이었다(『高麗史』 권74 志28 選舉2).

255) 『高麗史』 권74 志28 選舉2.

256) 민공규는 명종 27년 5월에 지공거 崔讜과 함께 左諫議大夫로 동지공거가 되어 房衍寶 등을 급제시켰고, 신종 4년 5월에도 簽書樞密院事로 지공거가 되어 崔宗俊 등을 급제시켰다(『高麗史』 권73 志27 選舉1).

민공규의 아들 康鈞·迪鈞·仁鈞²⁵⁷⁾·良鈞·光鈞 등 5형제는 모두 급제를 하였는데, 민공규의 처가 官致月祿하는 영화를 누렸다고 한다. 민공규의 아들 다섯이 모두 과거에 급제한 일은 당시 화제가 되었으며, 후세에까지 사람들에게 의해 회자되었다.²⁵⁸⁾ 한편 金觀은 3남인 富儀가 숙종 2년에 급제함으로써 富弼·富侁·富軾·富儀 등 4형제가 모두 급제하는 영광을 얻었다. 예로부터 한 집에서 세 아들의 급제자를 낸 어머니에게는 나라에서 매년 양곡 30석을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들은 4형제가 모두 급제하였기 때문에 10석을 더 주었는데 이것이 전례가 되었다고 하며,²⁵⁹⁾ 또 尹瓘의 아들 尹彦頤도 아들 3형제가 급제하였으므로 나라에서 매년 윤언이의 처에게 양곡을 주었다고 한다.²⁶⁰⁾

閔滉도 고종 31년에 乙科 제2인으로 급제하였다. 이로써 민영모의 후손들은 4대에 걸쳐 연이어 급제하는 영광을 누렸다.

閔漬는 17세에 국자감시에 급제하고, 19세인 원종 7년에 지공거 洪縉, 동지공거 郭汝益이 주관한 과거에서 장원(乙科第一)으로 급제하였다.²⁶¹⁾ 이어서 1남인 민상정은 충렬왕 27년에 21세로 급제하고, 다음 해에 殿試에 급제하였다. 민상정의 5남인 閔璿도 충혜왕 복위 1년에 급제함으로써 3대가 연이어 급제를 하게 되었다.

閔頤은 충렬왕 11년에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이어서 아들 思平, 愉,

257) 고종 35년 3월에 지공거 洪均과 함께 大僕卿으로 동지공거가 되어 金鈞 등을 급제시켰다(『高麗史』 권73 志27 選舉1).

258) 『牧隱集』 牧隱文藁 卷之八 序 賀竹溪安氏三子登科詩序 ; 『竹溪志』(周世鵬) 竹溪行錄一 賀竹溪安氏三子登科詩序 ; 『東文選』 卷之八十六 序 賀竹溪安氏三子登科詩序.

259) 『高麗史』 권97 列傳10 金富侁 附 金富儀傳.

260) 『高麗史』 권96 列傳9 尹瓘 附 尹彦頤傳. 원종대에 于琯은 몽고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그 곳에서 반역활동을 하였다. 우정의 3형제는 과거에 급제를 하였는데, 반역한 형제가 있다고 하여 어머니에게 나라에서 녹봉을 주지 않았다(『高麗史』 권130 列傳43 叛逆4 于琯傳).

261) 『高麗史』 권26 世家26 元宗 7년 5월 丙午 ; 『高麗史』 권73 志27 選舉 1. 그는 충렬왕 20년 10월에 지공거 安珦과 함께 동지공거로 尹安庇 등 33인을 급제시켰다(『高麗史』 권73 志27 選舉 1).

忭 등 3형제가 급제를 하는 영광을 누렸다. 이중에서 민사평은 충숙왕 2년에 급제를 할 때 東菴 文定公이 과거를 주관하였는데, 답안을 매우 정밀하게 살펴 합격한 자가 정원도 채우지 못하였으며 선발된 급제자들은 모두 훌륭하였다고 한다.²⁶²⁾ 여기서 동암은 李璵으로 이제현의 부이다. 특히 민유와 민변은 충혜왕 1년에 동시에 급제를 하였다.

閔霽는 공민왕 6년에 19세로 급제를 하고, 그의 아우인 閔開道 우왕 3년에 18세로 급제를 함으로써 형제가 10대에 급제하여,²⁶³⁾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²⁶⁴⁾ 민적, 민변에 이어 3대가 연이어 과거에 급제한 것이다.

閔瑾²⁶⁵⁾의 2남인 閔中理는 공민왕 17년에 급제하여, 晋州牧使,²⁶⁶⁾ 검교중추원부사를 지냈다. 그는 특이하게도 과거에 급제한 儒者였으나, 여말선초에 풍수지리에 밝은 유명한 術者였다. 우왕 4년에 천도지로 道誥의 秘記에 있는 北蘇 箕達山인 峽溪를 추천하고,²⁶⁷⁾ 태조 3년에 도읍지로 枳州 都羅山 일대를 추천하였으며,²⁶⁸⁾ 태종 4년에는 한양과 毋岳 중에서 어느 곳을 도읍으로 정할만한 것인지 논의가 있을 때 태종의 어가를 따라 무악 일대를 살펴보기도 하였다.²⁶⁹⁾

민백훤의 1남인 閔壽山은 우왕 9년에 과거에 급제를 하였다.²⁷⁰⁾ 이

262) 「閔思平墓誌」.

263) 고려시대 급제자의 평균 연령은 23.7세였다.

264) 민개는 공양왕 2년 윤4월에 知申事로서 국가감사에서 李遯 등 99인을 뽑았다(『高麗史』 권74 志28 選舉2).

265) 민근의 처가는 晋州 柳氏로, 李穡과는 동서간이다. 이모부인 이색은 민중리에게 版圖判書 자리를 주었다(『高麗史』 권137 列傳50 辛昌 1년 3월).

266) 『高麗史』 권137 列傳50 辛禡 14년 3월.

267) 『高麗史』 권133 列傳46 辛禡 4년 11월. 道誥의 秘記에는 세 곳에 서울을 두고 왕이 순행하라는 말이 있는데, 三京(서경, 동경, 남경)이 기능을 상실하고, 그 대안으로 제시된 개경 주변의 三蘇는 북쪽 서해도 곡주의 기달산, 남서쪽 예성강 하구의 백마산, 동쪽 단주(장단)의 백악산을 지칭한다.

268) 『太祖實錄』 권6, 太祖 3년 8월 乙酉.

269) 『太宗實錄』 권8, 太宗 4년 10월 壬申.

270) 민수산은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蔭仕로 司憲雜端과 左司諫을 지냈다(『高麗史』 권41 世家41 恭愍王 18년 7월 戊戌 ; 『高麗史』 권43 世家43 恭

때 장원은 金漢老였고, 李芳遠(태종)도 丙科 7위로 뽑혔다.²⁷¹⁾ 후일 김한로는 양녕대군의 장인으로 태종의 사돈이 되었다. 태종 17년에 사헌부에서 知价川郡事 민수산이 아내가 있으면서 아내를 취하여 임의로 직임을 떠난 죄를 청하자, 태종은 민수산은 同年同庚(과거에 급제하여 榜目에 같이 오른 사람)이라 하여 용서하여 주었다.²⁷²⁾ 同年은 급제 동기를 말함인데, 이들은 당과를 이루며 사사로운 정에 휩쓸리기도 하였다. 태종은 민수산을 옛 벗으로 배려하여 준 것이다.²⁷³⁾

하여튼 고려 왕조를 이끈 사람들은 대대로 벼슬하는 집안인 士族 있었고, 그 중에서도 유교와 문장을 공부해 과거에 급제한 유자였다. 여흥 민씨에게도 대대로 벼슬하고 권세가 있는 世臣大族으로 성장하는데 과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2. 婚姻

家門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혼인을 활용하였는데, 통혼의 대상이 되는 가문이 사회적으로 유력한 존재이면 명예로운 일이고, 또 스스로 가문을 높이고 출세를 빨리할 수 있는 길이었다.

閔令謨의 配는 裴氏였다. 『여흥민씨세보』에는 민영모가 『慶州裴氏世譜』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였다. 배씨의 동생은 柳益謙의 처였는데, 민영모가 아직 한미할 때 유익겸은 벌써 요직에 있었다. 관상쟁이가 배씨 자매의 상을 보고 언니는 부귀를 누릴 것이나 동생은 박명할 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동생은 자기 남편이 현달하였으므로 이 말을 믿지 않았다. 후에 유익겸은 鄭仲夫의 난에 죽고,²⁷⁴⁾ 민영모는 과연 재상 자리에 올랐다. 유익겸의 처는 빈한하고 궁박하여

愍王 20년 6월 壬寅).

271) 『高麗史』 권135 列傳48 辛禰 9년 4월.

272) 『太宗實錄』 권34, 太宗 17년 12월 丙戌.

273) 『太宗實錄』 권22, 太宗 11년 9월 丙寅.

274) 의종을 호종하던 祗候 유익겸은 정중부의 난이 발생한 普賢院에서 살해되었다. 이때 왕을 호종하던 문신, 대소 신료, 환시들이 모두 살해당하였으며 그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한다(『高麗史』 권128 列傳41 叛逆2 鄭仲夫傳).

일상 언니의 도움을 얻어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한다.²⁷⁵⁾

閔湜의 배는 閔氏로 禮賓卿 閔志寧의 딸이다. 특이하게도 동성결혼을 하였다.

閔公珪의 1녀는 좌복야 東州 崔氏 崔宗粹에게 출가하였다. 최종자의 부는 평장사 文懿公 崔誥이고, 조부는 평장사 文淑公 崔惟淸이다.²⁷⁶⁾ 아들이 고종대에 과거에 급제하여 중서시랑평장사를 지낸 崔曄이다. 2녀는 정당문학 安定 任氏 任景肅에게 출가하였다. 임경숙의 부는 良淑公 任濡이다. 閔光鈞의 여는 좌복야 慶州 金氏 金軌에게 출가하였다.

閔湜의 배는 東州 崔氏로 平章事 文景公 崔璘의 딸이다.²⁷⁷⁾ 사간 최린은 고종 20년 3월에 표문(『東國李相國集』에 실림)을 가지고 금나라에 사절로 가다가 길이 막혀서 돌아왔고,²⁷⁸⁾ 동왕 28년 4월에는 왕의 조카인 永寧公을 왕의 아들이라고 하여 양반집 자제 10명을 거느리고 몽고에 禿魯花(質子)로 가게 되었는데, 추밀원사 최린은 이들과 동행하였다.²⁷⁹⁾ 동왕 30년 1월에는 추밀원부사로 비서소감 金之岱 등과 함께 몽고에 가서 토산물을 전달하였다.²⁸⁰⁾ 하여튼 최린이 대몽외교에 활약하던 시기는 민황이 과거에 급제한 무렵이었다. 민황의 2남인 종유가 고종 32년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결혼은 과거에 급제하기 몇 년 전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민황의 출생 시기는 고종 초로 보이고, 민인균은 30대 중반의 비교적 늦은 나이에 황을 얻었다고 추정할 수가 있다.

閔萱의 배는 文化 柳氏로 평장사 柳暉의 딸이고, 2녀는 밀직사 海州

275) 『高麗史』 권101 列傳14 閔令諛傳.

276) 최유청은 태조대의 공신인 崔俊崱의 6대손으로, 예종대에 과거에 급제하여 평장사를 지냈다. 아들 崔證, 崔詔, 崔謙, 崔誥이 과거에 급제하여 처가 나라로부터 녹을 받았다(『高麗史』 권99 列傳12 崔惟淸傳). 또 崔瑩은 최유청의 5대손이다(『高麗史』 권113 列傳26 崔瑩傳).

277) 최린은 최유청의 증손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문하시랑평장사를 지내고 고종 44년에 사망하였는데, 그 후 가족들은 몽고군에게 살해되었다(『高麗史』 권99 列傳12 崔惟淸 附 崔璘傳).

278) 『高麗史』 권23 世家23 高宗 20년 3월.

279) 『高麗史』 권23 世家23 高宗 28년 4월.

280) 『高麗史』 권23 世家23 高宗 30년 정월 庚子.

崔氏 崔瑞에게 출가하였다. 최서의 부는 문하시중 崔諱이다.

閔宗儒의 배는 長沙 俞氏로 僉議贊成事 文度公 俞千遇²⁸¹⁾의 딸로 長沙郡夫人이다. 민중유가 19세에 청도감무가 되었다가 임기가 끝난 후 都兵馬錄事가 되었는데, 과거에 급제한 문신인 도병마사였던 유천우가 민중유의 기특함을 보고 사위로 삼았다고 한다.²⁸²⁾ 민중유가 유천우의 사위가 된 것은 원종 8년경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아들 頤이 원종 11년에 태어난 것과는 대체로 일치한다. 이때 유천우는 御史大夫로 있었다.²⁸³⁾ 특히 유천우는 원종 10년 6월에 몽고와의 강화를 반대하던 林衍이 원종을 폐하고 安慶公을 왕으로 세울 때 참지정사로서 혼자서 이를 극력 반대했었다.²⁸⁴⁾

閔漬의 배는 平山 申氏로 찬성사 純簡公 申思侏의 딸로 東韓國大夫人이고, 閔祥正의 배는 全義 李氏로 대제학 文義公 李彦忠의 딸이다.

閔頤의 前配는 安東 金氏로 上洛君 金忻의 딸로,²⁸⁵⁾ 永嘉郡夫人이다.²⁸⁶⁾ 김흔은 시중 金方慶의 아들로 宣授鎮國上將軍, 管高麗軍萬戶, 贊成事都僉議司事를 지낸 활달하고 인자했던 인물이었다.²⁸⁷⁾ 후배는 原州 元氏로 찬성사 元瓘의 딸이다. 원관은 호가 退翁으로 과거에 급제하고, 충렬왕 5년에는 禿魯花로 원에 보내졌고, 그 후 귀국하여 벼슬이 첨의찬성사에 이르렀다. 치사 후에는 원나라에서 생활을 하였으며, 원의 慧因寺에 대장경을 시주하였다.

閔思平의 배는 彦陽 金氏로 威烈公 金就礪의 현손이자 貞烈公 金倫의 딸로, 彦陽郡夫人이다.²⁸⁸⁾ 김륜은 재상 文敬公 許珙의 사위로, 彦陽府院君에 봉해지고 찬성사, 좌정승을 지냈다.²⁸⁹⁾ 김륜은 함포만호 시

281) 『高麗史』 권105 列傳18 俞千遇傳.
 282) 「閔宗儒墓誌」.
 283) 『高麗史』 권26 世家26 元宗 8년 9월 乙酉.
 284) 『高麗史』 권130 列傳43 叛逆4 林衍傳.
 285) 민적은 이 때문에 김흔의 당류였다(『高麗史』 권123 列傳36 嬖幸1 印侯傳).
 286) 「閔思平墓誌」.
 287) 『高麗史』 권104 列傳17 金方慶 附 金忻傳.
 288) 중추원, 1969, 「閔思平配金氏墓誌」, 『앞 책』 上, 684~685쪽.

절 유명한 인도승 指空禪師를 따라 靈山 영취산까지 따라와 지공선사를 위해 천태종 사찰인 보림사에 누각(반야루)을 지어 준 것으로 유명하다. 여기서 지공선사는 이것을 받아 지키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되풀이하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누구든지 無生을 얻을 수 있다는 文殊菩薩無生戒를 강론하고, 어린 나옹혜근과 옥천사의 노비 신돈도 설법을 들었다고 한다.

閔愉의 배는 順興 安氏로 文淑公 安牧의 딸이다. 안목은 安珣의 손자로 밀직부사를 지내고, 공민왕 대에 順興君에 봉해졌다.²⁸⁹⁾ 閔愉의 배는 陽川 許氏로 찬성사를 지낸 文正公 許伯의 딸로, 陽川縣夫人이다.

민적의 1녀는 찬성사 坡平 尹氏 尹繼宗에게 출가하였다. 민사평의 同母 女弟이다. 윤계종의 딸이 충혜왕의 禧妃가 되어 충정왕을 낳았다.²⁹¹⁾ 2녀는 文康公 朴遠의 아들인 竹山朴氏 朴仁龍에게 출가하고, 3녀는 직제학 陽川 許氏 許信에게 출가하였다.

민사평의 여는 김방경의 손자로 평장사 良簡公 金承澤의 아들인 안동김씨 上洛君 金昂에게 출가하였다. 이가 驪興郡夫人 閔氏로 金九容의 모이다. 영흥군부인은 효심이 대단하여 공민왕 10년에 흉건적이 침입했을 때 어머니를 모시고 피난을 하였고, 피난 후에는 여흥에서 10여 년을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뜨자 어머니가 살고 있던 여흥에 산소를 모시고, 가족들의 상경하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흥에 살면서 어머니의 산소를 돌보다가 56세로 세상을 뜨고, 어머니 묘 옆 서쪽 10 數步에 묻혔다.²⁹²⁾ 즉 민사평은 자기의 외가로 딸을 출가시킨 것이다. 외가는 사촌끼리도 혼인이 허용되었다.²⁹³⁾

閔璿의 배는 全州 崔氏로 良敬公 崔文度的 딸이고, 2남 閔由誼의 배

289) 『高麗史』 권110 列傳23 金倫傳.

290) 『高麗史』 권105 列傳18 安珣 附 安牧傳.

291) 『高麗史』 권89 列傳2 后妃2 禧妃尹氏傳.

292) 중추원, 1969, 「金昂配閔氏墓誌」, 『앞 책』 上, 706~707쪽. 민사평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외동딸이 이처럼 어머니를 봉양한 것이고, 外孫奉祀를 받았다.

293) 『高麗史』 권33 世家33 忠宣王 즉위년 11월 辛未.

는 南陽 洪氏로 밑직사 洪範의 딸이다.

閔霽의 배는 礪良 宋氏로 礪良君 宋璿의 딸이고, 閔開의 배는 固城 李氏로 文敬公 李岡의 딸이다. 이강은 우리나라에 조맹부의 송설체를 받아들인 문하시중 杓村 李岳의 아들이다.

이처럼 여흥 민씨는 동주 최씨, 안정 임씨, 경주 김씨, 문화 류씨, 해주 최씨, 장사 유씨, 평산 신씨, 전의 이씨, 안동 김씨, 언양 김씨, 순흥 안씨, 양천 허씨, 파평 윤씨, 죽산 박씨, 전주 최씨, 남양 홍씨, 여량 송씨, 고성 이씨, 전주 이씨 등과 혼인을 맺었다. 이들 통혼권에 있는 성씨들은 당대의 권문세가들이었다.

한편 충신왕은 교서를 내려 同姓 사이의 통혼을 금하게 하고, 중친들은 여러 대에 내려오면서 재상을 지낸 가문의 딸과 혼인하며, 재상들의 자손도 종실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왕실과 결혼할 수 있는 가문으로는 慶州 金氏, 彦陽 金氏, 安定 任氏, 慶源(仁州) 李氏, 安山 金氏, 鐵原(東州) 崔氏, 海州 崔氏, 孔岩(陽川) 許氏, 平康 蔡氏, 淸州 李氏, 唐城(南陽) 洪氏, 黃驢(驪興) 閔氏, 橫川 趙氏, 坡平 尹氏, 平壤 趙氏 등으로, 이들 모두 대대로 혼인할 만하다고 하였다.²⁹⁴⁾ 고려 왕실에서는 처음에 族內婚을 실시하였으나 현종대 이후부터 족내혼과 족외혼을 병행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원 世祖의 충고로 족내혼을 금한 것이다. 고려 최고의 귀족인 왕실과의 통혼은 가문으로서의 최고의 영예일 뿐만이 아니라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첩경이기도 하였다. 이때에 이르면 여흥 민씨도 開城 王氏와의 國婚 대상이 될 정도로 甲族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는 여흥 민씨가 문신집안으로써 민영모가 기반을 마련한 이래, 8촌간인 민종유·민지 代에 이르러 권문세족으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마련했기 때문이었다.

3. 名儒

여흥 민씨 중에서 학자로는 默軒 閔漬, 及菴 閔思平, 漁隱 閔霽가 文名이 높았다.

294) 『高麗史』 권33 世家33 忠宣王 즉위년 11월 辛未.

1) 민지

민지는 성리학에 밝았다. 그의 논의에는 공자의 학문에 반대되는 것이 있었으며, 주자의 昭穆에 대한 이론을 비평하기도 하였다 한다.²⁹⁵⁾

민지는 문장과 시에도 능하였다. 문장으로는 충렬왕 21년에 왕명으로 세운 麟角寺普覺國師靜照塔碑의 碑文이 대표적이다.²⁹⁶⁾ 國學 大司成이었던 민지가 왕명으로 찬한 본 보각국사 一然의 탑비문은 일연의 문인이었던 竹虛가 왕명을 받아 王羲之의 글씨로 集字하여 더욱 유명하다. 이에 앞서 충렬왕 14년 4월에는 꽃들이 만발하자 여러 신하들과 함께 왕궁의 香閣에서 연회를 베풀 때 술이 한창 흥겨울 무렵 충렬왕은 典理正郎 민지, 國學直講 趙簡에게 새로운 곡을 지으라고 명하고, 좌부승지 安珣도 시를 지어 왕에게 올렸다.²⁹⁷⁾ 또 충렬왕이 內僚 高汝舟를 민지에게 보내서 시를 지으라고 할 정도로 시에도 능하였다. 이 때 민지는 고여주에게 白酒(탁주)와 오이를 내어서 대접을 하였다고 한다. 고여주가 돌아와서 왕에게 아뢰기를 민지는 재상이지마는 가난함이 이루 비길 데가 없다고 하자, 충렬왕은 쌀 100석을 민지에게 보내주었다고 하는 일화가 전한다.²⁹⁸⁾ 그는 노래도 잘하여 충렬왕이 세자로 있을 때 西原侯를 위한 연회에서 何彼穠矣(시경 편명)를 불렀다고 한다.²⁹⁹⁾

또 충렬왕은 민지에게 충렬왕 대에 鄭可臣이 찬술한 『千秋金鏡錄』을 증보 수정할 것을 명하였는데, 나라에 사변이 많아서 완료하지를 못하였다. 그 후 충숙왕이 동왕 1년에 정승으로 치사한 민지와 찬성사 權溥에게 태조 이래 역대왕의 실록을 편찬하라고 명하자,³⁰⁰⁾ 權溥와 함께 그 책을 교열하여 편저하고 이름을 『世代編年節要』라고 하였는

295) 『高麗史』 권107 列傳20 閔漬傳.

296) 중추원, 1969, 『앞 책』 上, 467~473쪽.

297) 『高麗史』 권30 世家30 忠烈王 14년 4월 戊寅.

298) 『高麗史』 권107 列傳20 閔漬傳.

299) 『高麗史』 권105 列傳18 趙仁規傳.

300) 『高麗史』 권34 世家34 忠肅王 1년 1월 乙巳.

데, 여기에는 태조의 7대조인 虎景大王으로부터 원종에 이르기까지 7 권으로 만들었다. 『世系圖』를 완성하여 동시에 왕에게 받쳤다. 또 동왕 4년에는 『本朝編年綱目』을 편찬하였는데,³⁰¹⁾ 여기에는 國祖 文德大王으로부터 고종에 이르기까지 모두 42권이였다.³⁰²⁾ 충목왕은 교서를 내려 “태조가 개국한지 429년인데 그 사이의 법전과 문화와 좋은 말씀과 훌륭한 행실을 숨기고 전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후세에 보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충선왕께서 민지에게 명하여 『編年綱目』을 수찬하게 하였으나, 아직도 빠진 것이 많으니 내용을 보태어 찬술하여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곧 부원군 李齊賢, 찬성사 安軸, 한산군 李穀, 안산군 安震, 제학 李仁復에게 명하여 편찬하여 올리게 하였다.³⁰³⁾

또 조선 태조는 개국한 처음에 봉화백 鄭道傳과 서원군 鄭摠에게 명하여 『高麗國史』를 편찬하게 하였는데, 『實錄』과 검교시중 민지의 『綱目』, 시중 이제현의 『史略』, 시중 李穡의 『金鏡錄』³⁰⁴⁾을 채집·편집하여 左氏의 편년체를 모방하여 3년 만에 37권을 성취하였다.³⁰⁵⁾ 이러한 민지의 역사서들은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의 편찬에도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민사평

민사평은 과거에 급제한 후 10년의 오랜 기간을 학문을 닦는데 힘

301) 『高麗史』 권34 世家 34 忠肅王 4월 庚子.

302) 『高麗史』 권107 列傳20 閔漬傳.

303) 현재 유교의 도덕적 합리주위에 입각하여 편찬된 이들 官撰史書들은 모두 전하지 않고, 이제현의 『史略』에 실었던 史論들만이 남아 있다(『高麗史』 권37 世家37 忠穆王 2년 10월 庚申; 『高麗史節要』 권25 忠穆王 2년 10월; 『高麗史』 권109 列傳22 安軸傳; 『高麗史』 권109 列傳22 李穀傳; 『高麗史』 권110 列傳23 李齊賢傳; 『高麗史』 권112 列傳25 李仁復傳).

304) 공민왕은 20년 5월에 李仁復과 이색에게 『本朝金鏡錄』을 증수토록 하였다(『高麗史』 권43 世家 43 恭愍王 20년 5월 癸酉).

305) 『世宗實錄』 권25, 世宗 6년 8월 癸丑.

썼다고 한다.³⁰⁶⁾ 進賢館大提學을 지낼 정도로 학식을 갖추고 있었으며, 당시 李齊賢, 鄭子厚 등과 함께 문명이 높았던 학자였다. 특히 이제현은 그의 부친이 민사평의 恩門이고, 민사평은 이제현에게서 부친의 묘지명을 받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及菴集』이 세상에 전하였다고 하나 애석하게도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특히 詩文에도 능하였다. 그의 시에 대해 이제현은 “詩法이 天趣를 自得하였다”고 하고, 이색은 “造語가 平澹하고 用意가 精深하다”고 평하였다.

그의 시문은 말년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散逸되었다. 다행히 외손 金九容이 遺詩 약간 편을 간수하였다가 공민왕 9년에 편찬하고 이제현, 白文寶, 이색의 序를 받았다. 그 후 성균관에 재직하면서 유고를 善寫하였고, 마침 민사평의 문인 李頤가 경상도 안렴사로 부임하게 되자 김구용의 板下本으로 이색과 李仁復의 跋을 받아 공민왕 19년에 5권 1책으로 『及菴先生詩集』을 간행하였다. 다행히 초간본이 誠庵古書博物館에 소장되어 있어 보물 708호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卷首에는 민사평의 묘지명, 연보, 輓詞 1편이 실려 있다. 권1~4는 詩이고, 권5는 牧丹詩, 識, 詞疏가 실려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때 초대 총독이었던 寺內正毅가 수집한 수집품 중에 민사평의 글씨가 한 점 있었는데, 수년 전 경남대학교로 돌아왔다.

민사평은 拙翁 崔漣과 친분이 두터웠는데, 그의 글을 매우 좋아하여 자신의 사재를 털어 그의 문집을 간행하여 주기도 하였다. 최혜는 고려와 원에서 모두 과거에 급제한 수재로 檢校成均大司成을 지냈다. 글을 읽고 지을 때는 스승이나 친우에게 의존함이 없이 자력으로 해석·저작하였다. 이단에 유혹되지 않고 시속에 젖지 않았다. 자기가 옳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대방이 비록 노성한 스승이거나 박학한 학자라도 따지고 논박하여 자기의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벼는 정직한 사람을 택하였고 시를 짓고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낙을 삼았다. 평생에 집안 살림에 관심이 없어 가세가 심히 빈곤하여 충혜왕 복위 1년에 54세로 사망하자, 친구들이 부조하여 장례를 치를 정도였다.

306) 「閔思平墓誌」.

본국 명현들의 시문을 수집하여 편집한 『東人之文』 25권과 저서 『拙藁千百』과 『狷山隱者傳』이 있다.³⁰⁷⁾ 최해는 민사평의 조부인 민중유의 묘지명을 지어주기도 하였다(『拙藁千百』에 실림).

민사평은 아들이 없이 딸 하나만 두었기 때문에 외손으로 金方慶의 현손인 楊若齋 金九容(초명 齊閔)을 키우며 공부시키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김구용은 16세에 進士試에 급제하고, 이듬해에 禮部試에 급제한 수재였다. 성균관 직장이 되었을 때는 후진들을 힘써 추천하고 가르쳐주어 피곤한 줄을 몰랐고, 비록 휴일에 집에서 쉬는 날이더라도 질의하러 오는 학생들의 발길이 그치지 않았다. 그 후 성균관 대사성, 判典校寺事를 지냈다. 外鄉인 여주에서 유배생활을 할 때는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산수가 좋은 곳에서 시짓기와 술마시기로 낙을 삼았으며, 처소의 편액을 六友堂이라고 하였다.³⁰⁸⁾ 經學에 밝아 당대의 명유인 李穡, 李集, 鄭夢周, 李崇仁 등과 교유하였다.

그는 시·부·잡문 등 글짓기를 잘하였는데 특히 시에 능하였다. 일찍이 공민왕이 모란꽃에 대한 시를 지으라고 하였을 때 첫 자리를 차지하여 왕이 기특하게 여겼다는 일화가 있다. 이색은 붓을 대면 시가 구름과 연기처럼 솟아난다고 칭찬하였다. 정종 2년에 그의 아들 金明理가 그의 유작을 수집하여 펴낸 『楊若齋學吟集』이 전한다. 이밖에 『楊若齋集』이 있다. 하여튼 민사평은 외손인 김구용과 金齊顏를 매우 사랑하였고, 이들의 교육에 힘써 모두 과거에 급제시켜 顯達하게 만들었다.³⁰⁹⁾

3) 민제

민제는 經史에 밝았으며 특히 史學을 잘하고 詩評도 잘하였다. 젊어서부터 禮를 잘 안다고 알려져 무릇 국가의 典禮는 모두 그가 詳定하고 禮文을 지었다. 樞府에 올라서도 항상 예조를 겸하였고, 異端을 배

307) 『高麗史』 권190 列傳22 崔漣傳.

308) 『高麗史』 권104 列傳17 金方慶 附 金九容傳.

309) 「閔思平墓誌」.

척하고 陰祠를 미워하였다.³¹⁰⁾

4. 忠臣

金椿의 『海東忠義錄』에는 閔愉와 閔安富가 鄭夢周, 吉再, 李穡, 元天錫 등과 함께 高麗忠臣不死自靖之人 속에 들어 있다.³¹¹⁾ 여흥군 민유는 전술한 대로 공민왕 대에 신돈의 집권이 이어지자 벼슬을 버리고 통진 봉상리에 우거하며 은둔생활을 하다가, 고려가 망하자 고려에 대한 충절로 두문동(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광덕산 서쪽 기슭)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민안부는 호가 農隱으로 민식의 4남인 閔仁傑의 현손인데, 공민왕 9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奉翊大夫, 典理判書, 禮儀判書를 지내고,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으로 들어가 72賢이 되었다. 閔由誼(由義)는 호가 漁逸로, 閔瑢의 2남이다. 공민왕 18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동왕 20년에 史官,³¹²⁾ 우왕 즉위 초에 正言,³¹³⁾ 그 후 知益州事를 지냈다. 고려가 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平山 先塋下 月谷에 은둔하며 새 왕조의 신하가 되지 않기를 맹세하고 끝내 入朝하지 않다가 태종 7년에 사망하였다. 또 李仁任의 죄상을 논하며 尹紹宗 등과 함께 斬棺과 潛宅을 상소했던,³¹⁴⁾ 사류의 신망을 받던 閔開도 대사헌으로 공양왕이 왕위에서 물러나던 날,³¹⁵⁾ 이를 반대하고자 말과 기색에 이를 나타내었다. 이에 南閔 등이 趙浚에게 민개의 목을 베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조준이 반대하여 죽음을 면하였다.³¹⁶⁾

310) 『高麗史』 권108 列傳21 閔宗儒 附 閔霽傳 ; 『太宗實錄』 권16, 太宗 8년 9월 庚申 ; 「閔霽卒記」.

311) 『貞齋先生逸稿』 권3 撫遺 海東忠義錄.

312) 『高麗史』 권132 列傳45 叛逆6 辛旽傳.

313) 『高麗史』 권109 列傳22 安軸傳 ; 『高麗史』 권124 列傳37 嬖行2 金興慶傳.

314) 『高麗史』 권126 列傳39 姦臣2 李仁任傳.

315) 『高麗史』 권46 世家46 恭讓王 4년 7월 辛卯.

316) 『太祖實錄』 권10, 太祖 5년 12월 丁亥 ; 「閔開卒記」.

V. 맺음말

여흥 민씨는 고려 후기에 많은 과거 급제자와 재상을 배출한 명문이었다. 재상으로는 민영모·민공규·민훤·민종유·민지·민상정·민적·민사평 등이 배출되고, 민지와 민적은 최고 품계인 종1품에까지 올랐다. 고려의 권문세족은 고려 전기로부터 그 세력을 이어 내려온 가문, 무인집권기에 등장한 가문, 원과의 관계에서 등장한 가문 등이 있었으나, 여흥 민씨는 무인집권기에 등장한 가문이었다.

고려 전기에 중앙으로 진출한 민씨 중에서는 尙書右僕射 겸 太子少師을 지낸 閔可舉 집안이 대표적이다. 후기부터는 門下侍郎 同中書門下平章事 判尙書吏部事를 지낸 閔令謨 집안이 대대로 과거에 급제하면서 민씨를 대표하는 집안으로 성장하였다. 이 때문에 현행 『여흥민씨세보』는 민영모의 집안만으로 구성된 세보가 되고 말았다.

여흥 민씨는 문신 집안으로써 민영모가 기반을 마련한 이래, 8촌간인 민종유·민지 代에 이르러 권문세족으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마련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민종유 후손들은 조선 말의 민씨세도까지 내려오면서 번영을 누렸다.

고려 왕조를 이끈 사람들은 대대로 벼슬하는 집안인 士族있었고, 그 중에서도 유교와 문장을 공부해 과거에 급제한 유자였다. 여흥 민씨에게도 대대로 벼슬하고 권세가 있는 世臣大族으로 성장하는데 과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여흥 민씨는 開城 王氏와의 國婚 대상이 될 정도로 甲族이었다. 여흥 민씨는 동주 최씨, 안경 임씨, 경주 김씨, 문화 류씨, 해주 최씨, 장사 유씨, 평산 신씨, 전의 이씨, 안동 김씨, 언양 김씨, 순흥 안씨, 양천 허씨, 파평 윤씨, 죽산 박씨, 전주 최씨, 남양 홍씨, 여량 송씨, 고성 이씨, 전주 이씨 등과 혼인을 맺었다. 이들 통혼권에 있는 성씨들은 당대의 내봉으라하는 권문세가들이었다.

여흥 민씨 중에서 학자로는 默軒 閔漬, 及菴 閔思平, 漁隱 閔霽가

文名이 높았다.

여흥 민씨에서는 여러 명의 충신도 배출하였는데, 金椿의 『海東忠義錄』에는 閔愉와 閔安富가 鄭夢周, 吉再, 李穡, 元天錫 등과 함께 高麗 忠臣不死自靖之人 속에 들어 있다. 閔由誼도 고려가 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平山 先瑩下 月谷에 은둔하며 새 왕조에 신하가 되지 않기를 맹세하고 끝내 入朝하지 않았다. 또 사류의 신망을 받던 젊은 閔開도 대사헌으로 공양왕이 왕위에서 물러나던 날, 이를 반대하다 생명에 위협을 받아 목숨을 잃을 뻔하였다.

[논문접수 : 2016.05.03, 심사시작 : 2016.09.01, 심사완료 : 2016.09.10]

주제어 : 여흥 민씨, 권문세족, 민칭도, 민영모, 과거급제

【참고문헌】

『驪興閔氏族譜舊序』 『東國李相國集』 『新增東國輿地勝覽』 『宋子大全』
『朝鮮王朝實錄』 『高麗史』 『三國史記』 『여흥민씨세보』 『貞齋先生逸稿』
『自著』 『東文選』 『東史綱目』 『高麗史節要』 『立齋先生遺稿』 『牧隱集』
『研經齋全集』 『騎牛先生文集』

金龍善, 2012,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학교 출판부.

김창현, 2006, 『신돈과 그의 시대』, 푸른역사.

閔德植, 2009, 「高麗時代의 外侵과 楊根城」, 『年報』 18, 충북대학교박물관.

閔賢九, 1978, 「高麗의 對蒙抗爭과 大藏經」, 『韓國學論叢』 1,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中樞院, 1969, 『朝鮮金石總覽』 上, 경인문화사.

한국학문헌연구소, 1982, 『慶州先生案』, 亞細亞文化社.

【Abstract】

The study of growth progress about Yeoheungminssi's influential families in Goryeo dynasty

Min, Deok-shik

Yeoheungminssi was noble family from middle to last of Goryeo dynasty, there were many men who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of that period and prime ministers. There were Minyoungmo, Mingonggyu, Minhueon, Minjongyu, Minji, Minsangjeong, Minjeok, Minsapyeong. The influential families of Goryeo dynasty were families from early Goryeo dynasty, families that was appeared during martial period and families that was appeared during relation between Mongol yuan empire. Yeoheungminssi was families that was appeared during martial period.

The famous family was Mingageo's family of Yeoheungminssi who entered to center of Goryeo dynasty in Early Goryeo dynasty. After middle Goryeo dynasty, the famous family was Minyounmo's family. Because their family's every generation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So present Yeoheungminssi-sebo is for Minyounmo's family.

Yeoheungminssi was established foundation to be civil official family by Minyoungmo. After Minyoungmo, third cousins who were Minjongyou and Minji made influential families. Especially Minjongyou's descendants created prosperity from the Goryeo

dynasty to last of Joseon Dynasty.

Key word : Yeoheungminssi, influential families, Minchingdo, Minyoungmo, pass the state examination